

# 빛처럼

60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빛처럼 60호  
발행일 | 2020년 1월 1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 한국교회

총 회		강 원		경 상	
서 울		충 청			
한국총회	(042) 638-6611~3	원주교회	(033) 766-1348	거제교회	(055) 681-3550
강남교회	(02) 459-8557	대전교회	(042) 283-3865	김천교회	(054) 434-2071
대방교회	(02) 815-1344	장항서부교회	(041) 956-5746	안동교회	(054) 852-3207
동부교회	(02) 966-4294	천안교회	(041) 568-0568	대구교회	(053) 959-7880
서부교회	(02) 355-8851	청주교회	(043) 284-3705	부산교회	(051) 553-0277
경 기		전 라		해 외	
분당교회	(031) 709-0191	광양교회	(061) 762-0513	미국 달拉斯 972-479-9899	
수원교회	(031) 293-3504	광주교회	(062) 951-2363		
안산교회	(031) 408-2301	남원교회	(063) 625-6219		
안양교회	(031) 473-0291	목포교회	(061) 283-5732		
인천교회	(032) 473-1009	삼계교회	(063) 642-7619		
의정부교회	(010) 3657-2831	서도교회	(063) 634-8430		
평택교회	(031) 373-2641	수문교회	(061) 862-1092		
하남교회	(031) 762-2541	전주교회	(063) 223-6451		

참예수교회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홈페이지에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살펴보세요.  
(<http://www.tjc.or.kr>)

tjc.org | 繁體中文, 日本語, Bahana Indonesia, English, Deutsch, Español,  
Français, Português, Русский, tiếng Việt



발행일 2020년 1월 1일  
발행·편집인 윤종득  
발행처 빛처럼 도서출판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10번길 74-10(대동))  
등록일 2008년 3월 7일  
등록번호 제364-2008-000009호  
TEL 042) 638-6611~3  
FAX 042) 638-6614

# Contents 목차

여는글	58	지교회 소식
<b>02 만나 주시는 하나님</b>	<b>58</b>	<b>제주집회소 소개</b>
서부교회 김한길 목자		동부교회·제주집회소 김용준 목자
성경인물탐구	62	신앙의 향기
<b>04 결단의 신앙으로 동족을 구한 왕후, 에스더</b>	<b>62</b>	<b>분반 활동</b>
장항서부교회 나이레 집사		거제교회 아동부
성경 낱말 퍼즐	63	회화
<b>09</b> 청주교회 박성호 집사		천안교회 김은지 자매
해외선교	64	신앙포스터展
<b>10 미얀마 교회 방문기</b>		천안교회 아동부
청주·천안교회 이요셉 목자	66	찬송만화   멀리 멀리 갔더니
간증		장항교회 김연수 형제
<b>19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b>		성경배경지식
캐나다 토론토   조은희 자매	70	신구약 중간기에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
<b>22 내일 일은 난 몰라요</b>		강남교회 허민욱 형제
독일 하이델베르크   분당교회 백소라 자매	74	만나칼럼
<b>28 합당한 삶, 기쁨되는 삶</b>		<b>74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b>
대만   동부교회 김주은 자매		호주 퍼스교회 시몬 친   동부교회 김경남 번역
<b>30 미얀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b>		기행문
미얀마   전주교회 정수리 자매	80	<b>80 학생부 대만교회방문 소감</b>
<b>35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소중함</b>		이소윤 외 10명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천교회 최재희 자매	87	예덴장학회
<b>38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로 되돌리심</b>		<b>87 예덴장학회 광고</b>
미얀마교회 여호수아 목자   수원교회 이명철 번역	88	빛처럼
<b>49 주여! 「민들레지역아동센터」를 받으소서!</b>		<b>88 빛처럼 원고 모집</b>
장항서부교회 허재환 집사	89	기본신앙
병영일기		참예수교회 10대 기본신앙
<b>53 주의 뜻대로 빛어 만드소서</b>		
강남교회 김종민 형제		

# 만나 주시는 하나님

서부교회  
김한길 목자

“대통령으로 당선 된 후에 찾아가 만나려고 했더니 만나주지 않아서 굉장히 섭섭했다.”

모 대통령 후보 후원자로 열심히 선거 운동하신 분의 이야기이다. 너무 큰 차이가 나는 존재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萬有)을 만들어 손 안에 두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찮은 인간인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대한 우주 가운데 먼지보다 작은 존재인 ‘나’를 만나 주신다.

영원과 순간의 만남  
거룩과 죄악의 만남  
전능과 미약의 만남  
우주와 먼지의 만남  
공룡과 개미의 만남

내 존재를 아시고 관심 가져 주실 뿐 아니라 자녀 삼고 사랑해 주신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시8:4/공동번역)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시16:3)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은 아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악한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사59:2)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7:23)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마25:11-12)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만나 주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슥1:3)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기도할 때, 계명을 지킬 때 만나 주신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요14:21)

주께서 만나 주실 때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만나 주신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  
그로 말미암아 기뻐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하시며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욥기 33장 26절

캘리그라피 | 장항서부교회 김미지 자매

# 결단의 신앙으로 동족을 구한 왕후 에스더

장항서부교회  
나이레 집사



〈아하수에로 앞의 에스더〉 클로드비뇽, 프랑스 17세기작품, 루브르박물관

바티칸의 시스티나(Sistina) 성당 천정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 화가인 이탈리아 출신 미켈란젤로의 1509년 작품인 천지창조를 비롯하여 성경의 창세기 주요사건을 묘사한 프레스코화가 그려져 있다. 또 사각 모서리 한편에는 이스라엘을 구한 인물과 사건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중에는 바

사국(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던 재상 하만이 자신이 만든 장대에 에스더의 용기와 결단으로 매달려 죽는 「하만의 징벌」이라는 벽화도 함께 그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에스더사건은 페르시아 황제들의 궁정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 화가들이 즐겨 그리는 소재이다. 특히 루브르에 소장된 클로드 비뇽(Claude Vignon)의 1624년 작품 「아하수에로 앞의 에스더」라는 작품은 가장 정교하고 화려하게 묘사한 작품이라 인상적이다.

이외에도 에스더가 자기 동포들을 살리려고 애쓰는 장면을 감동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은 많다. 프랑스의 위대한 극작가 장 라신이 1689년에 쓴 희곡 「에스더」도 그 이야기를 다룬다. 작곡가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첫 오라토리오는 원제가 「하만과 모르드개」였다가 나중에 다시 「에스더」로 바뀌었다. 성경의 에스더서는 영화로도 몇 차례 제작되었다. 젊은 조앤 콜린스가 에스더로 나오는 1960년 영화 「에스더와 왕」이 유명하며, 2006년에 제작된 「왕과의 하룻밤」도 있다.

이처럼 에스더는 후대사람들에게도 집중적인 관심과 조명을 받은 여인이었으나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의 포로가 된 몸이었다. 바사 왕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간택을 받아 왕후로 뽑히게 되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의 특별하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

### **에스더는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었다.**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에2:7)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를 비롯하여 모든 보는 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비록 그녀가 다른 여자들보다 치장을 덜 하였지만 "내시 헤게의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자들에게 꼼을 얻더라" (에2:15)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여자들이 아름다운 보석과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경쟁적으로 자신의 외모를 잘 보이려고 가꾸는 상황에서 정해진 물품외에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치장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다른 사

람이 가질 수 없는 아름다운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오직 채식과 물로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들보다 얼굴이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다(단1:15)

다니엘의 말씀처럼 에스더 또한 이방에서 유대인으로서의 법도와 믿음을 가지고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면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기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담백하고 용기 있으며 결단력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개의 동족인 유대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기 시작했다. 왕에게 유대민족을 모함하고 그들을 멸망하기 위한 명령을 얻어내어 법령을 만들고 일을 신중히 성사시키기 위하여 제비를 뽑아 유대인들을 말살시킬 D-day를 잡는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양아버지인 모르드개를 통하여 듣게되며 왕에게 구원해줄 것을 호소하라는 부탁을 받게된다.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네가 왕후의 지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에4:14)

이에 에스더는 모르드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에4:16)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통틀어 가장 멋지고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을 목전에 둔 실제 상황이다. 당시 바사 제국은 왕을 보호하고 왕의 권위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왕의 명령 없이 누구도 왕을 알현할 수 없다는 법률을 제정해 놓았다. 따라서 에스더가 유대민족을 위하여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을 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던 것이다. 사실 에스더는 처음에는 이런 상황을 모르드개에게 구차하게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에스더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인간이기에 갖는 연약함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적인 안목으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용기이자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에스더의 양아버지(아버지의 조카이자

만 부모가 죽자 딸처럼 양육하여 양아버지라도 칭한다.)인 모르드개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는 에스더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왕에게 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해주실 것”이라고 <에4:14>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 구절로 보아 모르드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양육 받은 에스더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 금식기도를 통하여 나아가 승리하는 에스더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 기로 작정을 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한다. 본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머나먼 이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개, 느헤미야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문화와 생활습관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을 고집하며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를 떠나서 가깝게는 교회가 없는 지방이나 멀리 해외에 나가서 장기간 생활을 할 경우에 평소의 규칙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안식일을 준

수하며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일년, 이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중 얼마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BC 483~473년 경의 일로 바벨론 포로의 1차 귀환(BC 537년) 이후 2차 귀환(BC 458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남유다 멸망(BC 586년)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감안할 때 이방의 포로 생활을 100년이상 했던 시기이고 사실 모르드개는 증조부 기스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낳은 포로 3세대로 보는 학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머나먼 타국에서 태어나 성장했던 모르드개나 에스더가 유대인의 신앙을 지키고 생활했다는 것은 대단히 본받을 만한 일이다.

우리도 큰 일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한다. 물론 금식기도도 한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사흘간 물 한 모금, 밥 한술 안 먹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머나먼 이방에서 100년 이상 살면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2세대, 3세대라면 신앙을 지키며 물 한 모금, 밥 한술 안 먹으며 사흘간 금식기도를 하고 더욱이 목숨을 내걸고 죽으러 갈 수 있을까? 에스더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능가하는 믿음의 여인이며 오늘날 우리

에게 큰 교훈과 울림을 준다.

이렇게 사흘간 금식을 한 후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간다. 사흘을 굶은 그녀의 모습은 아마 매우 초췌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에 그녀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금줄을 내밀게 하여 목숨을 구하고 왕의 마음을 얻게 하셨다. 둘째날 잔치에서 그녀는 동족을 구하기 위한 소원을 말하게 되는데, 죽음을 각오한 그녀의 신앙적인 행동은 사태를 역전시켜 승리를 가져오게 하였다.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하만은 자신이 만든 장대에 달려 죽게 되고, 에스더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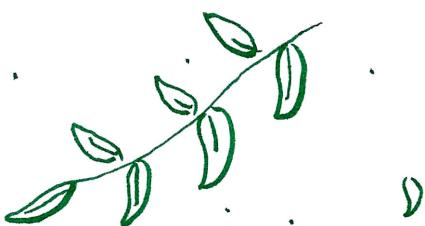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이 필요하다.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과 세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확고하고 담대한 결단의 신앙은 힘겹게 세상과 싸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의 지침이자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 2,500년전의 왕후 에스더를 생각하며

우리는 삶속에서 신앙의 결단을 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포기하지 않을 때 취업, 승진, 부, 명예 등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를 경험하

기도 한다. 그러나 모르드개의 말처럼 내가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 나는 더 큰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에스더처럼 용기 있게 결단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락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위한 통과의례라는 것을 깨닫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앞에 나아갈 때 에스더와 유대민족이 받았던 큰 복락과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네가 여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

신명기 4:29 

캘리그라피 | 장항서부교회 김미지 자매

# 낱말 찾기 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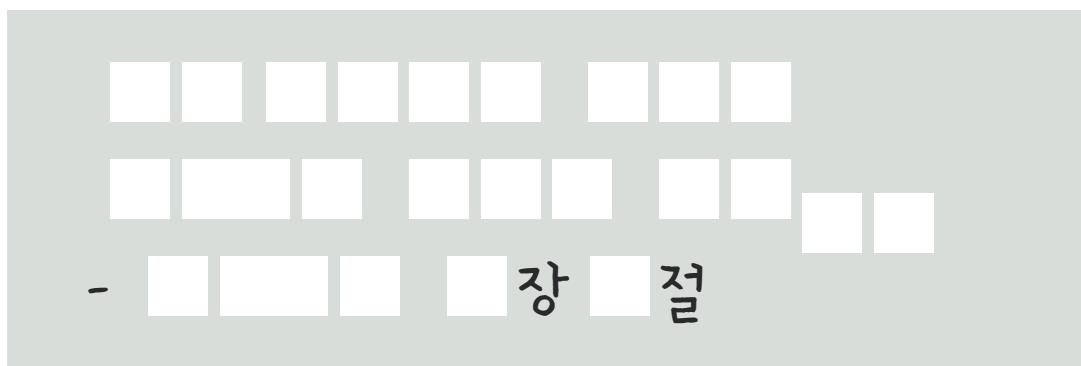


청주교회  
박성호 집사

모든 신약 경권과 시가서를 찾은 후, 남아 있는 글자들을 모으면 성경 구절이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신약 경권과 시가서는 가로, 세로, 대각선 등 여러 방향으로 찾아보세요 ^0^)

언	나	음	마	태	복	음	요	전	세
잠	누	가	복	음	요	하	도	행	베
이	복	요	요	한	일	서	도	도	드
음	데	유	서	주	요	전	믿	사	로
에	살	마	다	도	서	도	디	이	전
베	로	히	서	서	고	린	도	후	서
소	니	브	전	새	야	고	보	서	나
서	가	리	데	살	로	니	가	전	서
후	후	서	모	례	가	골	하	웁	보
데	서	하	디	아	도	니	기	음	립
모	나	베	드	로	후	서	몬	레	빌
디	서	삼	한	요	록	시	계	한	요
서	아	디	라	갈	편	요	한	이	서



# 미얀마 교회 방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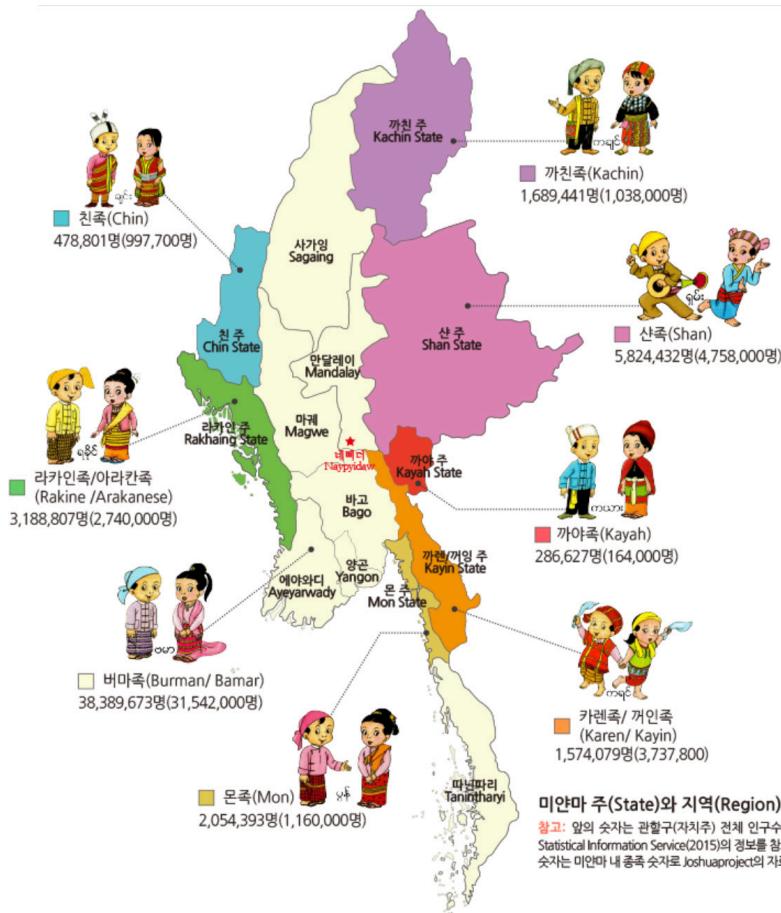
청주·천안교회  
이요셉 목자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형제들께서는 그 나라가 과거에 버마라고 불렸다는 것과 제법 잘사는 나라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더군요. 간혹 아시안게임과 같은 축구경기에서 한국과 호적수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많은 사람에게 아마도 미지의 나라일 것입니다.

그 미지의 나라에 참예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부터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선교 및 목회지원 사역을 위해 파송을 받아 유요한 목자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 「미얀마」라는 나라

미얀마의 국토 면적은 남한의 6배나 되지만 인구는 5천5백만 명으로 비슷합니다. 공식명칭은 미얀마 연방공화국(The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인데 크게 8개의 부족이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중 버마족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버마라고 불렀습니다. 시내를 걸어보니 정말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도사람,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같이 보였고 피부색도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부족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미얀마어란 것은 없습니다. 공용어는 버마족의 언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미얀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인구의 90%가 불교 신자라 미얀마 사회와 사람들의 생각 깊숙이 불교가 녹아 있습니다. 첫날 숙소에서 잠을 자다 새벽 4시 반에 온 동네가 떠나갈 정도의 큰 음악 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불교 사원에서 신도들을 깨워 새벽기도에 오라는 소리였습니다. 한번은 네덜란드 사람이 길을 가다 너무 시끄러워서 불교 노래가 나오는 스피커를 껐는데 곧 나라에서 그 사람을 추방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이 우리 성도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6월 중순 즈음부터 3개월간 8일에 하루씩 불교의 기념일이 있는데, 그 날을 마치 안식일처럼 쉽니다. 그러고는 보통 수업을 토요일에 해서 우리 교회의 아동들이 3개월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 미얀마의 「참예수교회」

미얀마의 여러 부족 가운데 서북쪽에 인도와 접경한 지역에 사는 친족(Chin tribe)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서양의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많이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족은 무려 5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실제 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마치 한국에 온 것처럼 군데군데 많은 교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오순절교, 침례교, 안식교 등 교단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그 미얀마의 참예수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략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친족의 어떤 사람이 여러 부류 교단을 접해서 교리를 배웠습니다. 안식교에서 안식일에 관한 교리를 배우고, 오순절교회에서 성령에 관한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곳도 안식일을 지키면서 성령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으로 참예수교회를 발견하고 곧장 연합총회로 연락을 해 왔더랍니다. 왜냐하면 참예수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1992년 쯤의 이야기입니다. 그 때 연합총회에서 미얀마로 일꾼을 파송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친족이 거주하는 곳은 출입금지 구역이라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서 모여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 참예수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친족 지역이 개방되면서 그쪽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족지역인 칼레이묘와 양곤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나요?

지금 미얀마에는 4개의 교회가 있고 한 두 곳에서 가정집회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300명 정도

입니다. 현지인 목자님이 두 분 계시고, 지금은 싱가포르 참예수교회에서 미얀마 사역 위원회를 구성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저 요셉 목자, 미얀마의 여호수아 목자, 싱가포르에서 파송한 바나바 총 목자, 유요한 목자, 미얀마의 디도 목자입니다.



왼쪽부터 이요셉 목자, 여호수아 목자(미얀마), 바나바 총 목자(싱가포르),  
유요한 목자, 디도 목자(미얀마)

교회의 모습도 대략 소개합니다. 어떤가요?



〈칼레이이묘의 뚜양잘랏교회〉



〈칼레이이묘의 나찌콩교회〉



〈칼레이이묘의 소보야신교회〉



〈양곤교회〉

사실 미얀마교회를 보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깃들어있는 불교적인 관념들, 불교 친화적인 사회 제도와 분위기, 가난과 질병으로 고단한 삶, 진리와 무관하게 해외 선교사들로부터 누렸던 사랑에 대한 향수 등 미얀마의 참예수교회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가볍지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1,000명이 세례를 받았으나 남은 사람

이 300명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탈하고 심지어 지도자마저도 교회를 떠났을 때, 남은 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위 사진에 보이는 나찌콩교회는 한때 가장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불과 네 가정만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새겨보니 우리 한국의 참예수교회도 그때 그랬었습니다.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고,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간혹 우리 한국의 참예수교회가 삼사천 명에 불과하다고 푸념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약 50년 전의 한국인 미얀마에 간다면 어떤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미얀마에 갈 때 주어진 일은 임직자 교육과 안식일 설교, 청년 교육 등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초기의 역사와 간증, 박필선 목자님의 순교와 같은 일군들의 현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요한 목자님이 한국 참예수교회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저녁 가정집회에서 제가 한국교회의 간증을 나눈 후 다과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신실한 「성도들」

미얀마교회는 불교의 나라에서도 교세가 아주 작은 기독교 분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얀마교회의 상황이 절망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신실한 일꾼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과거 많은 조롱을 받았듯 그곳도 그러하였고, 한국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가 있었던 것처럼 그곳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소보야신교회에 간증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위의 사진으로는 잘 느낄 수 없지만, 그 교회는 비교적 넓은 대지 위에 덩그러니 놓인 창고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한 땅에 누가 이사를 와서 교회의 땅에 슬그머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일로 교회와 갈등



이 생겼고 교회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그려던 어느 날 그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는 다시 교회 옆으로 돌아와 다시 교회의 땅을 침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연 그의 둘째 아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그는 더 이상 교회를 상대로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도 세우셨습니다. 미얀마의 여러 부족 중 하나인 친족은 다시 여러 소수부족으로 나뉘고 여러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말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통역을 하시는 여호수아 목자님의 언어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역시나 다른 언어라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교회가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말을 하실 수 있는지 물었더니 영어와 버마어를 포함해서 무려 7개의 언어를 할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미얀마 여호수아 목자님의 간증도 이글 뒤(39쪽)에 실릴 것입니다. 그 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교회를 보살피기 위해서 그 필요에 맞는 일꾼을 세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번 방문에서 안식일 일



〈구도자 할머니〉



〈전도대상자 가정〉

정 외에는 매일 전도대상자를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의 왼쪽 사진의 할머니는 여러 교단의 교리를 어설프게 알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분입니다. 여호수아 목자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늦은 오후에 지난 영은회를 다녀 간 전도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진리를 전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해가 지도록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집안 조명은 작은 LED등 하나가 전부여서 휴대전화기 조명으로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미얀마 목자의 하루 일과는 대체로 이와 같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서 심방하고, 또 오토바이 타고 이동해서 전도하고...

어떤 형제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형제는 40대 초반인데 벌목작업을 하다 쓰



〈심방 중 원격진료〉



〈불법 수상가옥인 신도 가정〉

러지는 나무에 어깨를 맞아 신경 손상으로 손가락이 오그라든 채로 10년 이상을 지내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간 바나바 목자님이 싱가포르의 의사 형제와 화상통화를 통해 진료하는 장면입니다. 한국 같았으면 진즉 치료를 받았을텐데 이 형

제는 일을 할 수 없어서 가지고 있는 소를 임대해서 하루 3천원을 버는 것이 수입의 전부입니다.

감사하게도 싱가포르에서 어떤 자매가 양곤교회에 화물차를 한 대 기증하셨습니다. 그 차를 일부 개조해서 화물칸에 사람이 타고 다녔습니다. 위의 우측 사진은 그 차를 타고 심방을 간 한 자매의 집입니다. 수상가옥이었는데요, 그 집에 모기가 얼마나 많았을지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싱가포르교회의 「한 몸 정신」

미얀마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 아직 신양적,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했습니다. 미얀마에서 나오는 현금은 그들이 안식일에 먹을 채소를 사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회당을 마련하고, 일꾼들의 생활비나 구제에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연히 일꾼을 세워 훈련하고 시시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영적이거나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몸 아닙니까? 연합총회에서는 미얀마교회를 지원하는 사역을 싱가포르교회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미얀마 사역위원회를 구성해 이 모든 일을 돋고 있습니다.



〈우리와 한 몸인 양곤교회의 성도들〉

놀라운 것은 싱가포르에서 전담 목자를 파송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싱가포르에 1,000명 정도의 신도가 있는데 전임 사역자는 4명에 불과합니다. 비율로 따져 보더라도 목회자의 수가 한국에 비해 많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 한 명을 미얀마에 파송한 겁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한몸정신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자신만 돌볼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의 교회도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싱가포르 교회의 희생을 보면서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 20명의 전임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안에 대략 10명의 목자님이 퇴임하십니다. 그리고 목회자 한 명이 배출이 되는 시간은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스스로 돌보기에 바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지는 않습니다. 대학부 영은회나 단기신학에 가면 훈련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이 때의 저와 비교해보자면, 몇배는 더 많이 훈련된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에 대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영육간에 자신을 혼신적으로 단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셨지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9:37-38)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청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추수할 일꾼을 세워 주십시오.  
여호와이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시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땀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캐나다 토론토  
조은희 자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사실 전 결혼 전까지 제가 해외에서 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만계 캐나다인인 황천준 형제와 결혼하게 되면서 대만에서 2년 동안 신혼 기간을 보낸 뒤 2008년 9월부터 캐나다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양으로, 외할아버지께서는 퇴임목자시고 이미 참예수교회 신도 제3세대로서 교회는 당연한 의무감으로 습관처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대만에서 신혼생활 할 때도 교회는 가지만 중국어를 전혀 몰랐기에 사실 예배시간에 명하게 있거나 졸 때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후 1년은 신혼을 즐기자는 생각으로 아기를 갖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임신을 원했지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캐나다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니 미리 가서 생활기반을 준비하자며 대만 생활 2년 만에 캐나다 토론토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토론토로 왔고 내가 계획하면 아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한지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

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인데, 아기만 있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을까?’하는 투정과 불만과 불안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어머니께서 100일 기도를 권유하셨습니다. 남편과 매일 아침, 임신을 위한 10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저는 ‘주님, 아기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제가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되어서 안 주시는 것이니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남편과 함께 쿠바를 일주일 여행하고 곧바로 홍콩, 마카오를 3박 4일 더 여행한 뒤 대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래 일정은 대만 도착 후 한 달, 한국에서 한 달 휴식 후에 캐나다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내일 시아버지께서 일 때문에 한국에 가시는데 너희와 함께 가시길 원하신다’고 하셔서 부랴부랴 짐을 또다시 챙겨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일정을 마치고 친정 부모께서 시부모와 저희를 만나려 호텔로 오셔서 인사를 나누면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고

마침 한국에 왔으니 산부인과에 한번 데리고 가보려 한다는 말씀을 나누셨답니다. 시부모를 배웅한 다음날이 마침 여동생의 산부인과 정기검진일이니 같이 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보다 1년 늦게 결혼한 여동생도 임신을 위해 산부인과 정기적으로 검진 중이었습니다.

산부인과를 가기 위해 지하철로 이동 중에 친정 어머니께서 거제교회의 한 자매가 꿈을 꾸셨는데 교회 야유회를 계곡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큰 잉어를 잡았는데 친정어머니가 '자매는 잉어 벌써 많이 잡았잖아, 나는 한 마리도 없으니 나를 달라'며 억지로 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태몽 같은데 혹시 딸들 중에 누가 임신한 게 아니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여동생이 "내 태동인 것 같은데~ 오늘 병원 가면 알겠지"라고 말하여 저도 동생은 병원을 다니며 임신을 준비했으니 당연히 동생의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부인과 도착 후 불임검사를 위해 왔다고 하니 초진이어서 소변검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로 병리사가 "양성반응이네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순간적으로 '양성반응이면 임신이란 건가 아닌가~'하고 긴가 민가 하고 있으니 "임신이에요"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검사실 밖에 있던 친정어머니께선 "네??" 하며 뛰어 들어오셨고 "너무 잘 되었다"라며 축하해 주셨지만 저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도 믿기지 않는 듯 얼떨떨한 얼굴이었고 저도 초음파를 보기 전까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의사가 초음파를 하면서 아기 심장소리를 들려주는 순간 저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신인 줄도 모르고 물가가 쌠 쿠바에서 택시비 아끼겠다고 한 시간이 넘게 구경 삼아 걸어 다닌 일, 홍콩-마카오와 대만, 한국에서의 체력의 한계를 느낀 바쁜 일정 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무리한 일정에도 아기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 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하게 예쁜 두 자녀를 더 허락하셔서 모두 세 자녀를 키우며 캐나다에서 정신없는 독박 육아를 하는 중입니다. 동생에게 간증 원고 청탁을 받은 날 주제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나를 캐나다에서 살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안식일 저녁 집회에 참석했는데 설교 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마10:32)라는 말씀이 제 머리를 크게 내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바쁜 육아를 핑계와 혹시 알게 된 한국인에게 조차 진리를 전하다 친한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 전도하지 못한 부끄러운 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많은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여서 다양한 문화, 음식, 종교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한인들은 이민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나 사업상 이득을 얻기 위해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을 대신하는 교회 커뮤니티가 단단히 형성되어 있어 참예수교회의 진리를 증거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참복음이 다른 한국인에게도 전파되기를 원하셔서 저를 캐나다로 보내신 것인데 저는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복

이 많은데 저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더더욱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Let Others See Jesus in You."(타인이 네 안의 예수를 보게 하라, 북미의 찬송가 492장)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앞으로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담대하게 참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하며 주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 네 안의 예수 보이라 (Let Others See Jesus in You)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  
사곡:B.B. McKinney, 역:狗狗

1. 이 죄 악 세 상 지 나 도 륙 저 들 이 네 삶 을 보 리 으 니  
 2. 네 삶 은 저 들 눈 앞 의 책 저 들 이 이 읽 고 또 읽 으  
 3. 그 끝 날 에 기 뾰 누 리 미 하 늘 되 상 아 로 공 담  
 4. 주 약 로 그리 스도 위 해 살 며 고 신 실 대 하

안 꿈 으로 순 전 하 여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네 생 재 하 늘 가 흔 키 아 저 들 이 네 안의 예 수 보 이  
 가 명 구 과 빛 영 혼 글 아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후렴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늘 이 르 며 참 되 고 신 실 하 여 저 들 에 네 안의 예 수 보 이 라

#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분당)

백소라 자매

2018년 3월, 한국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생각만 하고 있던 유학길에 급하게 올랐다. 짧은 기간 준비한 탓에 어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불충분했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한 채 몸으로 부딪치자는 생각을 가지고 독일로 날아왔다.

독일에 오기 전 마지막으로 대만을 여행했고, 2010년 대만 방문 때 만났던 레베카 언니는 가항웅 목자님과 연락할 것을 제안했다. 나는 필요하면 다시 물어보겠다며 거절을 했고,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6년 동안 출석하지 않은 나로서는 믿음이 이렇게 커지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출발 두 달 전 나는 독일에서 살 집을 구하고 있었고 그려던 중 어려움에 부딪쳐 불가피하게 가항웅 목자님과 연락을하게 되었다. 목자님은 내게 독일에 있는 참예수교회를 소개해 주셨고, 그 중 라인란트교회에 출석하고 있던 벨라를 연결해 주셨다. 벨라가 나에게 집을 구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사이트를 알려주었지만 나는 결국 집을 구하지 못한 채 2주간의 숙소만 예약하고 라인란트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아헨이라는 작은 도시로 떠나오게 되었다.



〈라인란트교회 청년부〉

도착 후 먼저 살 집을 구해야 했기에 열심히 집을 찾으러 다녔다. 하지만 내가 도착했을 때는 새학기가 시작될 시기라 나 말고도 집을 찾는 학생들이 넘쳐나 집 찾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벨라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라인란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다.

라인란트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청년부 모임을 하고 멀리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오는 성도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안식일을 지낸다. 안식일에는 오후 12시, 3시 총 두 번의 예배가 있으며, 청년부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반 스카이프라는 인터넷 전화를 통해 함께 기도를 한다.

내가 라인란트교회에 처음 갔을 때 청년부에는 같은 아헨에 사는 요셉과 에린, 율리히에 사는 벨라, 네덜란드에서 2~3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교회에 출석하는 알버트와 통통이 있었다. 네덜란드는 독일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영어나 중국어를 썼고 나의 부족한 언어로 의사 소통은 참 힘들고 어려웠고 모든 것이 낯설었다.

교회에서 첫 날 요셉은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리는 영은회의 정보를 내게 알려주었다. 그 영은회는 내가 호스텔을 체크아웃 해야 할 날짜와 비슷했고,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없고 짐은 많은데 가겠다고 표를 사버렸다. 하이델베르크로 떠나는 당일 한국에서 가져온 짐은 에린네 집에 맡겨두고 필요한 짐들만챙겨 무작정 떠났다.

영은회는 산 속에 있는 작은 호스텔을 빌려 열리고 있었다. 산속이라 핸드폰은 잘 터지지 않았고 인터넷이 느려도 너무



〈라인란트교회 청년부〉

느렸다.

Gott sei Dank! Thank God!  
感谢主! 감사주!

그러던 중 내가 신청했던 집에서 연락이 왔다! 비록 한 달 동안만 살 수 있는 집이었지만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뻤다. 집을 계약하기로 하고 10분 후 또 다른 집에서 연락이 왔고, 그 집은 내가 원했던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집이었다. 그렇게 구해지지 않던 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내게 주셨다. "Gott sei Dank."

그 후 학교 시험을 다 치르고 수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다. 선생님은 새로운 직장을 하이델베르크에서 구해 이사하신다고 했고, 나도 하이델베르크로 옮겨 선생님과 같이 시험준비 할 것을 제안하셨다. 많은 시간 고민한 끝에 선생님의 제안에 동의했고 하이델베르크로의 이사를

계획했지만 문제는 또 집이었다. 2018년 10월 또 다시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아헨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집을 찾고 있어 아헨을 떠나는 날까지도 집을 구하지 못했다. 집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 하던 중 프랑크푸르트에서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는 나디야가 집을 구할 때까지 자신의 집에서 머무르라고 자기 집 키를 기꺼이 내주었다 너무나도 고마웠다.

나디야네 집에서 머무는 동안 하이델베르크의 집을 찾으려 다녔지만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는 집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또 2주가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 집에서는 항상 먹거리가 넘쳐났고 집이 커 하이델베르크 청년부를 초대해 성경공부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이델베르크로 무사히 이사했고 수원 선생님과 공부를 하면서 난생 처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다. 그 결과 내가 해결 할 수 없었던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시험 2주전 취소한 성악가를 대신해 더 나은 성악가를 생일선물로 주시기도 하시며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럴 때마다 한국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가가 생각났다.

내가 이사하고 얼마 후 하이델베르크교회는 만하임으로 이사했고, 만하임교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만하임 교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성경공부가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부들은 교회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안식일을 지낸다. 안식일 아침 일어나 함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두 번 예배가 있고 예배가 모두 끝난 후 30분 동안의 기도회 후 청년부 모임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끝난다. 매주 수요일은 하이델베르크에 사는 청년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고 성경공부를 한다.

하이델베르크로 온 1년 후 나는 다시 집을 옮겨야 했고, 이사 한달 전부터 집을 찾기 시작했지만 이때도 다음 집을 찾



〈만하임교회 현당식 2019.10.06〉

지 못한 채 집계약 만료로 또 한달짜리 집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 이사한 직후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청년부 영은회가 있어 나는 또 집을 구하지 못한 채 함부르크로 떠났다. 영은회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왔어도 나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꼭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영은회에서 하나님은 내게 걱정할 시간 따위를 절대 주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끄셨고 사람들과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듬뿍 주셨다. 에너지가 넘쳐서 그런지 봉사할 때에 전혀 지치지 않아 너무나도 즐겁게 봉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일주일은 금방 흘러갔고 아쉬움을 남긴 채 다시 하이델베르크로 돌아와



〈만하임 교회 성도들〉

계속 집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하고 다시 짧은 기간 살 수 있는 집을 들어가야 하나 고민하는 동안 이사 해야 할 날짜가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 또는 틈날 때마다 이번에 새로 구하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이사 하루 전 저녁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였다. 이 집은 바로 시내에 위치했었고 집에서 하이델베르크 성이 보였다. 이런 곳은 보통 집을 보러 100명 이상이 오는데 이 날은 나 혼자 밖에 없었다. 전세입자는 아주 친절한 독일인이었고 우리는 말이 잘 통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집주인과 인터뷰를 하고 계약서를 쓴 그날 저녁 곧바로 이사를 했다. 이사 2주 후 처음으로 우리집에 모



〈만하임 교회 성도들〉

여 성경공부 겸 집들이를 했다. 근래에는 방학이라 서너 명만 모였던 사람들이 이 날에는 웬일인지 9명이나 되었고, 우리 교회에 아직 출석하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도 참석했다. 집이 아주 작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공부를 위해 여기까지 와준 애들이 너무 고마웠다. 또 이 집은 수원 선생님 집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어 이사 오기 전 보다는 선생님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기도하고 한다. 수원 선생님과의 기도를 통해 내 믿음은 점점 더 굳건해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신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Gott sei Dank"

독일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참 많이 겪었는데, 얼마 전 만하임교회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원 선생님은 이런걸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



〈새집에서 집들이 겸 첫 번째 성경공부〉

신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 힘으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나의 탄탄해진 믿음과 버팀목인 하나님의 든든함으로 열심히 해쳐 나가고 있다. 오늘도 나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더 봉사하기 위해 기도한다.

유럽에는 독일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 잘츠부르크, 스위스, 파리에도 우리



함부르크의 유럽 청년부 영은회



함부르크의 유럽 청년부 영은회

교회가 있고 대부분 10명 정도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 주로 독일에서 영은회가 열리고, 내년에는 신년 영은회(하이델베크), 오순절 영은회(함부르크), 가을 영은회(라인란트)가 개최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학생이거나 젊은 부부들이기에 어린이 영은회나 청년부 영은회가 함부르크에서 부가적으로 개최된다.

안식일에는 모두 두번의 예배가 있고, 어린이 예배와 청년부 모임도 갖게 된다. 유럽에는 목자님이 없는 대신 파리교회에 두 분의 집사님이 계시며 예배는 성도들이 스스로 진행하게 된다. 성도가 적은 교회나 거리가 멀어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스카이프를 통해 예배하게 되고, 가끔은 설교CD나 인터넷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영은회나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에는 영국이나 총회에서

목자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신다. 성도들의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부다페스트 등 여러 지역으로 어린 이를 위한 성경공부를 지원하려 간다.

이곳은 한국교회들에 비해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에 힘써 나서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있다.

교회에는 중국이나 대만 출신 성도들이 대부분이라 그들은 여행을 왔을때 쉽게 유럽에 있는 교회에 연결하여 자주 방문 하곤 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조금은 아쉽기도 하다.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도 여행이나 유럽을 방문할 일이 있을 때 이곳 교회를 방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합당 한 삶

## 기쁨 되는 삶

대만 (동부)  
김주은 자매

할렐루야, 저에게 이 글을 쓸 수 있게 허락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중국어를 배운 것을 계기로 중문과에 진학하였고, 2년간 대만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겨 대만에서 길고도 짧은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활 중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진 때는 도착 직후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색했던 그때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익숙했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낯선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셨기 때문에 마치 오랜 친구와 함께인 것 같은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 친구들은 낯선 대만 땅에 적응하기 급급할 때 저에게는 ‘참예수교회’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성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정말 처음 본 순간부터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저와 함께해 주시던 하나님, 또 그 이름으로 모인 같은 참예수교회 성도들 덕분에 금세 대만에서도 오래 살던 곳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진리를 사모하지만 신앙생활 중 새로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땅은 작지만 훨씬 많은 교회가 있는 대만은 대학부 소속 성도 역시 많았습니다. 한 대학교당 열 명이 넘는 대학부가 있을 정도로 대학생들의 수가 많습니다. 또 여러 대학교가 모여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는 훨씬 더 많은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대학부의 활동이 주체적이고 활발하며 학생들끼리 성경공부를 합니다.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성경에 대해 모르는 것이 참 많고 주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가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다름 외에 한국 교회의 문화로써는 조금 당황스러운 다름도 있습니다. 이전의 저는 세계의 모든 참예수교회가 크고 작은 부분에서도 완전히 똑같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과 다른 대만의 몇 가지 문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로인해 혼란스러운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 모든 곳엔 부족한 점과 배울 점이 공존한다는 것을 배웠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것은 배울 수 있고 좋지 않은 것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구했던 시기였습니다.

신앙생활 이외에도 유학생활에는 만만치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수업하는 4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온전히 저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그 시간들 중에서 학교와 교회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하나 고민했고, 유학생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야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나 가만히 지켜보시며 시험하-

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몰랐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스스로를 다져가는 시간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고 또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성장도 했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지금의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지금으로써는 저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돌아갈 수 있길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아멘.

# 미얀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미얀마(전주)  
정수리 자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에게 미얀마에서 생활할 시간을 주셨다. 다시 돌아보면 놀랍고 감사한 일이다. 한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얀마로 가게 된 것은 주의 인도하심 때문이다. ‘낯선 곳이라 해도 교회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라며 그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 부부에 관해 계획하셨던 것 같다. 한국과 3,800km 떨어진 미얀마! 거기서 기다리셨고 만나주셨다.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미얀마 성도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나누고자 한다.

## #미얀마 땅에서의 참예수교회



〈양곤교회〉



〈미얀마〉

‘미얀마’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하나로 ‘버마’라고도 불렸던 곳이다. 태국,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를 경계로 8개 민족이 하나의 연방 국가를 이루고 있다. 불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국민의 88%가 불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 6%, 이슬람교가 4%이다.

불교 신도가 많은 만큼, 사람들의 일상 속에 불교문화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거리와 동네마다 금색으로 번쩍거리는 불교 사원들이다. 한국에 편의점들이 곳곳에 있듯이 양곤 도시에는 구석구석마다 황금색 사원들이 자리 를 잡고 있다. 아침과 저녁에 마이크로 읽어주는 불경소리, 거리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의 공양을 받는 승려들... 처음 양곤에 도착했을 때 조금은 충격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도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참예수교회가 있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진리가 소중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또 양곤 땅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었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 인세인이라는 작은 동네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예수교회가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흰색 3층 건물로 된 양곤교회는 진흙 속의 보화처럼 아름다웠고 빛이 났다. 그 곳은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양곤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였다. 평안의 안식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었다. 매주 안식일이 기다려졌다. 교회 문 앞에 도착하여 2층 예배당에 오르고 말씀을 들으며 주를 만날 때 가장 행복했다. 이 기쁨이 없었다면 미얀마에서의 나의 생활은 어땠을까? 주께 감사한다.

### #미얀마 양곤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

미얀마에는 1990년부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여 현재 북부지역에 4개, 남부지역 양곤에 1개의 참예수교회가 있다. 나와 남편인 유요단 형제는 양곤교회에 출석했다. 양곤교회는 디도 목자님이 시무하시고, 총 80명의 성도들이 있으며,

안식일 평균 출석인원은 30~40명 정도이다. 성도들은 미얀마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곤교회에 있는 외국인 성도는 말레이시아의 마 형제와 우리 부부가 전부였다. 미얀마교회는 운영과 재정측면에서 아직은 싱가포르 교회의 도움과 지원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은회와 종교교육 행사 등으로 사역을 맡으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목자님들과 집사님들, 형제자매들이 자주 방문하신다. 이분들은 사역을 위해서 직장에 휴가를 내고 많게는 연 10회 이상 오시기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오래전부터 구제하고 계셨다. 국제학교를 열어 전도를 하고 성도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시는 분도 있었다. 자신의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이웃나라 미얀마 교회를 섬겨온 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주의 맑은 일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라는 가르침도 주셨다. 국적은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 부족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배울 수 있었다. 주께 감사한다.

### # 미얀마어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양곤에 오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언어였다. 미얀마에서는 자국어인 미얀마어를 사용한다. 동글동글한 모양의 글자

들이다. 초반에는 미얀마어의 자음과 모음 정도만 알고 있었다. 교회 설교도 주로 미얀마어와 영어로 선포되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 싶었고, 성도들과 아동반 아이들과 친해지고 싶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를 구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미얀마어 과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성경언어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그러자 어느새 성도들과 조금씩 의사소통을하게 되고, 설교를 듣는 중에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주께 감사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행복했다. 미얀마어를 배우는 것이 점점 즐거워졌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씀이 완전히 들리자 은혜가 되었다. 성도들과도 함께 웃고 때로는 위로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동반 교사로 섬기도록 해주셨다. 외국인의 발음이 아이들에게 온전하지는 않았겠지만,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많은 기도와 오랜 묵상이 필요하며,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는 것임을 다시 새롭게 깨닫게 하셨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에 정말 감사한다.

## # 양곤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양곤교회에는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까지 30명 남짓의 아동들이 있다. 활동성이 뛰어난 아동들의 존재감은 매주 교회 안팎을 가득 채운다. 안식일 점심을 먹고 나면 교회 1층에서 아동들의 찬양소리가 들려온다. 아동반 예배 시작의 알림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여운 목소리가 2층 예배당까지 들려올 때면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다. 양곤에 도착하고 2개월 쯤 지나서였다. 안식일인데 아동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무슨 일이 있는 걸까?’ 고민하다가 주주 자매에게 물어보니, 8월~10월(약 12주)동안은 평일에 불교관련 휴일이 있어서 평일에 쉬어야 하고 대신 안식일인 토요일에 학교를 가야한다는 것이었다. 학교를 가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안식일 성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올바른 신앙 생활 습관을 형성해야 할 시기인데... 12주라는 시간은 이들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안타깝고 걱정이 되었다.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아동들이 없는 빈 자리가 빨리 채워지길 기도했다. 길게만 생각되는 그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아동들이 보였을 때 주께 감사했다.

아이들의 학교 환경은 어떠할까? 하나님

께서 양곤의 초등학교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학교 교실 한 편에 금색 불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매일 불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독려한다. 불교문화가 학교 안에도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매월 그와 관련된 축제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교회 아동반 중에 ‘사무엘’ 이름을 가진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부모를 학교로

불러서 사무엘의 이름을 불교식으로 바꾸지 않겠냐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미얀마의 학교는 교육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었다. 어린 영혼들인데... 맑고 순수한 아동들이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매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아동반과 함께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감사했다. 주께서 미얀마의 아동반들을 더욱 사랑해주시고 굳건하게 지켜주시길 기도 한다.

양곤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하루하루 어렵게 생활비를 마련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그럼에도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 주의 성전에 나오신다. 교회에 오기 위해서 소



〈양곤교회 아동반 종교교육 오리엔테이션 기념〉

요되는 버스비 500원도 이분들에게는 큰 금액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기 위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셨다. 성도들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계셨다. 우기에 폭우가 내리게 되면 집 아래로 물이 차올라 수중가옥이 된다. 감기나 모기로 인한 여러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있고 치안 또한 좋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신앙을 지키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면 성도들에 비해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한 때 편한 환경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었던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 했다.



양곤교회 영은회 2018.12

교회 성도 중에 한 자매가 있다. 그 자매는 말이나 행동이 항상 따뜻했다. 어린 시절에 부모 대신 할머니의 손에 자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매는 참예수교회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금까지 올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 가끔은 성도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함께 기도하고 위로했다. 교회에서 혹시라도 상처받은 성도들이 있을까봐 세심하게 챙기기도 했다. 삶은 힘들어도 항상 웃고 밝았다.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웃을 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고단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으로 웃으며 견뎌낼 수 있을까?’ 그 자매와 양곤교회 가족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나에게 양곤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통해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양곤교회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기도한다. 다시 보고 싶다.

미얀마에서도 늘 지키시고 영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감사한다.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면서 매순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던 신앙의 여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신앙적 경험들을 잊지 않고 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안에 있기 를 소망한다.

# 함께 하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소중함

헝가리 부다페스트 (인천)  
최재희 자매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남편 직장의 발령으로 2018년 2월부터 이곳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처음 이 곳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저희 가족도 성도들도 너무 먼 곳이라서 걱정과 염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벌써 이곳 생활은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곳에 오기 전 저는 두 아이들을 돌보며 직장에 다니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루 종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기쁜 마음 보다는 쉬고 싶은 생각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겠지만 함께하거나 옆에 있을 때는 너무 당연해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들이 막상 없어지거나 멀어지면 그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저도 이 곳 생활을 통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 부다페스트에 와서는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하고 아이들 학교를 입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바뀐 회사 일에 적응하느라 밤 12시 1시가 다되어 귀가하는 일이 대부분이었고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이 곳에서 영어로는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습니다. 좁고 굽은 길이 많은 유럽 도로에서 운전하고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보내며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밖에 없었습니다. 늘 든든하고 크게 느껴져 의지가 되던 남편조차 이 곳 생활을 너무 힘들어 저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할 때 매일 기도를 하고 저에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들 입학시험을 치르러 학교에 갔는데 작은 아이가 면접을 보는 날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아 학교 입학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교장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을 때가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국제학교들도 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보내고 싶었던 저에게는 당시에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이 아이들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

고 남편도 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일에 적응을 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 올 때 가장 크게 고민이 되었던 건 아이들의 안식일과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식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성장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없는 이곳 생활로 자칫 아이들이 하나님을 잊고 생활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매일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하며 성경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아이들과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낮선 곳에 운전을 하고 가다 전화기가 꺼져버려 구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은 가로등이 많지 않아 해가 지면 정말 깜깜해 지는데 전화를 사용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기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며 길에 있는 이 정표는 모두 형가리어라서 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을 해서 뒷자리에 있는 아이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며 운전대를 붙잡고는 마음 속으로 제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참 길을 돌아 운전하다 제가 어렵잖하게 알고 있는 두나강 앞 국회의사당을 지날 때 ‘정말 감

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이들도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자기가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며 연신 신기해하고 감사했고 우리는 내비게이션도 없이 먼 길을 찾아 안전하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서 크고 작은 일들도 있고 자동차 접촉사고도 일어나고 병이 나는 일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아는 방법으로 도움을 청하거나 병원을 찾아가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했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한국처럼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가 아는 그런 방법보다 기도가 훨씬 확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장 아파서 병원에 가야되는데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병원예약은 다음주에 가능하니 그때 진료를 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먼저하고 염려를 내려놓는데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이 곳 부다페스트 교회에 대만 교인이 한 가족 있습니다. 그 성도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어서 서너 번 함께 예배한 적이 있지만 언어 문제가 있어서 평소에는 따로 예배하고 오스트리아에서 영어가 가능한 형제들이 오셔서 예배한다거나 독일에서 가향웅 목자님이 오셔서 특별 예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저희 가족은 토요일 오후의 안식일 예배에 참여합니

다. 아이들이 토요일 아침에 한인학교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형가리는 한국과 8시간 시차가 있어 여기 오후 시간에는 그날의 안식일 오전예배 동영상을 종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함께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부다페스트에 와서부터는 매주 함께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작은 예배가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고, 제가 이곳에서 교회에 가지 못해 매우 힘들어 하는 것도 알기에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안식일 예배에 함께 하는 것이라서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동안 남편이 말씀들을 들으며 무엇을 얼마나 깨닫고 돌아가게 될지 모

르지만 저는 안식일마다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남편도 뭔가 조금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두서없는 말들로 제가 성도들께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될지 자신이 없지만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 속에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올리며 항상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는 인천교회 성도들께도 깊이 감사합니다.

#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 말레이시아에서 미얀마로 되돌리심

번역 | 수원교회 이명철

미얀마교회  
여호수아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와 저희 가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제가 신학생이 되었는지에 대해 간증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망자리안(Mang Za Lian)입니다. 어렸을 때는 ‘투투(Tu Tu)’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세례는 9살 때 타웅필라(Taungphila)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될 꿈을 늘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청년부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임원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청년부 예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 때 제 나이는 13살, 난생 처음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타웅필라 교회 영은회가 열렸을 때였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시몬친(Simon Chin)목자님과 두세 명의 다른 성도들이 영은회를 돋기 위해 같이 오셨습니다. 그 중 펜훈(Pen Hoon) 자매도 계셨던 것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때 저희 가족은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분들을 저희 집 점심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저는 그 식사시간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신학 세미나에 참가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제가 그 세미나에 참가하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고 영어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신학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분들과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이 큰 장벽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우선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총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로선 당장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에라도 들어가려고 인도에 위치한 미조람(Mizoram)주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로 제가 미얀마에서 지원한 대학교 입학시험에 모두 낙방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적어도 그 학교들 중 하나엔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저는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무엇도 그의 뜻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미얀마로 돌아와 다시 입학시험을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얀마로 돌아와 재수 생활을 했습니다.

**2005년**, 마침내 대학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인도에 있는 일반 장로교회 신학대학으로 유학을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그럴만한 돈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미얀마에 있는 지방에 작은 대학교에도 보내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제게 말레이시아에 가서 먼저 일하면서 남동생의 학비를 보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에 일하러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화가 났고 남동생이 가는 대학교에 제가 갈 수 없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매우 억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가기 전에 저는 누나에게 이제 다시는 미얀마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또 우선은 말레이시아로 일하러 가겠지만 그것을 발판으로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기에 저도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대로 저는 먼저 말레이시아에서 6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2006년 12월**, 아론(Aaron) 형제, 링링(Ring Ring) 형제와 함께 말레이시아 서부 페라크(Perak)주에 있는 이포(Ipooh) 시로 일을 하러 떠났습니다. 마침 하나님께서 풍(Fong) 장로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마중 나오게 하셔서 이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 장로님은 2년 동안 매번 우리를 교회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이포에서 2년 정도 일했지만 일당이 겨우 18링깃(대략 5,000원) 이상이 되지 않아 일하던 공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일당은 하루 생활비로 쓰기에도 부족했기에 남동생의 학비까지 보조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저는 말레이시아 동부의 치니(Chini)시에 있는 난민캠프로 갔습니다. 그 곳에서 1년간 머무르며 유엔(U.N.)에서 저를 미국에 보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엔에서 저를 미국으로 보내주기 전, 12월 어느 날 새벽 2시, 말레이시아 경찰대가 난민캠프를 급습했습니다. 자고 있던 우리 모두를 깨우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지는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곤하여 자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친구가 제 몸부림에 깨어 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

둘은 텐트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붙들고 있었고 그를 따라 정글로 함께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정글로 도망치고 있을 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잠에서 깨지 못한 상태여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정글에 도착해서야 완전히 정신이 들었고, 그제야 저는 캠프가 아니라 정글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상황파악을 하는 동안, 다른 친구가 뛰어와 우리에게도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고!” 뒤를 돌아보니 많은 불빛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었기에 저와 친구는 냅다 달리기 시작했고 신속하게 숨어서 그 곳을 겨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경찰이 모두 떠난 후에 우리는 다시 우리 짐들을 챙기려 난민캠프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고는 우리 중 겨우 몇 사람만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에 가고자 하는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 결국 다시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말레이시아 수도)로 일자리를 구하러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위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구한 일자리는 어떤 식당이었는데 식당 주인이 일당을 지급하지 않아 그곳에서 겨우 6개월만 일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말레이시아 서부 케퐁(Kepong)이라는 도시에 형제(지금의 처남)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지금의 제 아내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2009년**, 케퐁바루(Kepong Baru)에서 결혼식을 한 후에 거기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케퐁바루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저희 부부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매주 금요일(안식일) 밤마다 교회 신도들이 우리를 교회로 데려다 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몸이 좋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외국인이었음에도 그들은 우리를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교회에서 설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회 사택에서도 머무를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진심으로 하나님과 케퐁 교회, 그리고 그 곳 성도들에게 깊이 감사합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생히 체험했으며, 제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은총을 경험하다**

첫 아이 출산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겨우 346링깃(대략 십만원)뿐일 정도로

생계유지조차 힘든 형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친구들에게 아내 병원비를 빌려 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그때 요셉총 (Joshep Chong) 목자님의 동생인 외 충총(Oi Choong Chong) 형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의 형 요셉 목자님께 말하면 병원비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국인은 집에서 출 산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21일 오전 9시경, 아내가 진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제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총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는 일하는 도중에 우리를 찾아와서 츄겟 (Chow Get) 종합병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나중에 샛방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도 돈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 병원비만 해도 대략 1,000링깃(3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 지 몰라 대단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만 한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없어 매우 낙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직장상사도 제 아내가 병원에 있다고 해도 일을 쉴 수는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 무 절박한 나머지,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

론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약 2시간 가량 기도했습니다. 힘든 줄도 모를 정도로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해 네 인생을 바 친다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너와 함 께 하리라.”

도무지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생각, 말씀들이 계속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크게 소리쳤습니다.

“주께서 진정으로 저를 도우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 인생을 바쳐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갑자기 제 마음이 따스해지고 온기가 제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총 형제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가 있는 병원으로 함께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가 말했습니다.

“투투 형제, 돈 문제여도 상관없으니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면 내게 말해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지만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도, 방금 전 드린 기도 중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제게 돈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돈은 마련 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아내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내는 마음을 놓는 듯 했습니다.

몇 분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미국에 사는 제 삼촌이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나자, 삼촌이 “투투, 혹시 무슨 일 있었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울었던 것처럼 들리는데?”라고 말하며 무슨 일이든 숨기지 말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촌은 곧바로 얼마가 필요한지를 물었고, 저는 필요한 액수를 말했습니다. 삼촌은 마침 자기 부모님께 돈을 보내려 은행에 왔으니 제게도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삼촌은 웨스턴유니온(Western Union) 은행을 통해 1,000링깃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인출해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가 영어나 말레이어를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저는 아내를 위해 분만실에 머무르며 기다렸습니다. 출산 후 아내의 친척 한 분이 병원으로 와서 산모와 아기에게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을 주셨습니다. 삼촌은 제게 1,000링깃을, 링링 형제도 제게 400링깃을 보냈습니다. 하

나님 은혜로 병원비는 고작 460링깃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케퐁 교회 성도들이 저희 병원비를 부담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케퐁 참예수교회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덕분에 저는 결국 병원비로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제 아버지는 제 딸의 이름을 ‘블레싱(Blessing; 복, 복락, 축복, 은총, 송축)’이라고 지었고, 저도 기쁘게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은 성도, 집사, 목자께서 방문하여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케퐁 교회 모든 분들이 다 제 부모이고 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희를 한 식구처럼 돌봐주셨는데 특히, 이레인탄(Irene Tan) 사모(총 목자님의 아내)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사모께서 산모가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음식을 가져다주시고 아기 목욕까지 해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케퐁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국 미얀마에 있는 목자님까지 저희 부부를 심방하도록 해주셔서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에게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말레이시아 목자님 또한 저희를 심방해서 제 친구들과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믿음과 신앙

의 여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

3개월 후 저는 케퐁발루에 있는 아침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제게 매우 잘해주는 친절한 가게 주인과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상기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때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던 날 약속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투투야, 너는 내게 혼신하기로 하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거니. 네 형제들에게 돌아가거라. 그곳에 나의 백성들이 있다.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음성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심지어 일하러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온통 차지했지만 저는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음성을 거부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그 음성을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고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서 뜨겁게 타올라 선지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습

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20:9)."

그렇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음성을 마음속에만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일 하러 갈 수도, 심지어 제 방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아내에게 저의 그 마음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우선 제 전화기로 제 친척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척은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흔쾌히 초대해주었고, 저는 성경책을 챙기고 그 친척 집까지 20분 정도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해서 저는 물세례와 유일한 참 교회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그 곳에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게 구원에 관련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들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적절한 성경구절이 제 머릿속에 떠올라, 그 즉시 그 구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 성경공부가 끝나자 어느덧 밤 11시가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매우 즐거웠습니다. 마치 제 안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금 전 성경공부에서 인용했던 구절들을 다시 적어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겨우 몇 구절 외에는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삶을 헌신하기로 했던 그 결단,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미국에 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내와 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그 헌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득 눈을 들어 제 주변의 건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 다 소멸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음성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곤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일할 때마다 그 찬송을 고요히 마음속으로 불렀습니다. 매일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속삭이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저는 제 안에 미안마로 가서 하나님께 헌신해야겠다는 강한

열망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 가슴 속에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강렬했던지 다시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일하려 갈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작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단지 단란한 가족과 현실적으로 편한 삶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한 번 제가 느낀 것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아내도 저와 같이 미안마로 같이 돌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안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하자마자, 마귀를 꿈속에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 90세 할머니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매우 나이가 많아 보였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미안마에도 돌아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으면 제 아내와 딸을 데려갈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물론 그 마귀를 물리치려고 했지만, 마귀가 제 입을 틀어막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신음을 내며 몸부림 칠 따름이었습니다. 아내가 고맙게도 저를 흔들어 꿈에서 깨워 주었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제가 꿈에서 본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일주일 내내, 늙은 할머니의 모습을 한 똑같은 마귀가 제 꿈에서 나타났고,

계속해서 저는 고통스러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말하지 못하다가 아내가 저를 깨우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신학원 첫 해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마귀가 나타났으며, 수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저희가 미얀마로 돌아가기로 계획하고 있을 때, UNHCR(유엔난민기구)서 저희 식구에게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헌신의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셨고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미국으로 갈지 아니면 미얀마로 헌신하려 가야할 지 의논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왠지 미국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매우 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징계하실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미얀마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친척들과 지인들은 제가 정말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삼촌은 미국에 사는 아들이 그들에게 한 해에 400레크(대략 6억6천만원)의 돈을 보낼만하다며, “평생에 그런 돈을 만져보기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미국으로 가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미얀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들 저를 바보같다고 조롱하였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디모데(Timothy) 목자님께 연락하여 제가 최근 경험한 것과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결정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모두 제 결정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또한 시(Shee) 목자님께서도 전화하여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다고 말씀 드렸고, 목자님께서 우선 미얀마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얀마로 가기로 결정한 후에도 저는 한동안 상당히 읊적했습니다. 마음 한 편으로는 미국에 너무 가고 싶기도 했고, 또 한 편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미얀마에서 목회자도 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목자님께 대여섯 번 정도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목자님께서 저의 처음 신앙적 결단을 지지하도록 해주시고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결국 미얀마로 돌아가려 했으나, 마침 설날이라 버스표가 모두 매진되어 돌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날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설날이 끝나고 그 다음날, UNHCR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미국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고자 한다면, 그 다음 날 아침 9:30까지 UNHCR 사무소에 도착하여 11시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만 오르면 되는 것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날 저녁, 우리는 버스를 타고 미얀마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버스를 기다리는 순간까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미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잊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정말 너무 아쉽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금이라도 미국에 가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금전적으로 미얀마 교회를 돋는 것이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참 중대도 없는 남자라며 저를 야단쳤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안심 시켰습니다. 아내의 위로를 받고 저는 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미얀마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고 그 버스 안에서 사실 아내 몰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는 제 꿈을 이룰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고 애초에 미얀마에 있으면 될 것을 굳이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다시 돌아가는 현실이 매우 서러웠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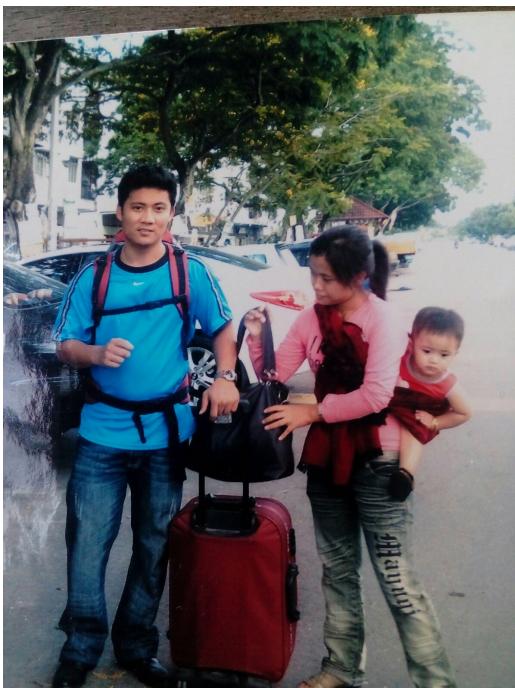
버스가 이포에 정차하여 잠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저는 다시 말레이시아로 돌아가 거기서 다시 미국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더 크게 화를 내며,

“당신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다면서 이제 와서 도망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나를 꾸짖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들어 제 믿음을 다잡고 미얀마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귀국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때 당시 제가 미얀마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 위로하시는 하나님

미얀마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양곤(Yangon; 미얀마 옛 수도)시 까지 갈 돈이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마침 양곤 참예수교회 전화번호가 있어서 디모데 목자님께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양곤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시 목자님이 청년예배를 인도하



〈미얀마로 돌아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고 계셨습니다. 저는 목자님께 제가 어떻게 다시 미얀마로 돌아오게 됐고 왜 헌신하기로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가족을 먹여 살릴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상태여서 부모님은 제게 200여 마리의 닭이 있는 양계장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미얀마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님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두 왕을 함께 섬길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런 제 믿음을 보시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아, 아직 전도자보(Mission Assistant)로 안립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만약 교회에서 너를 안립하지 않으면 다른 신학대학에라도 보내려고 했단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미얀마에 돌아가 그를 섬기라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으므로 교회에서 저를 안립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2012년 6월, 영은회에 시 목자님께서 오셔서 미얀마선교위원회(MMC)의 임명장을 주시며 태(Tae) 형제와 저를 전도자보로 임명하기로 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와 함께하시어 복을 주고 계심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했습니다.

**2014년 7월 15일**, 제 큰 누나 랄산랑(Lal San lang)이 하나님 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싱가포르에서 신학원 2학년에 접어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안식일) 밤예배를 마친 뒤, 제 남동생 아뵈(Aboih)에게서 큰 누나가 병원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 아침, 남동생은 누나가 의식을 잃었으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장 링기친(Linghy Chin) 형제에게 전화를 걸어 제 누나를 위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안식일 동안 제 누나를 위해 밤 9시까지 금식기도를 했지만, 누나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가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도대체 왜 제 누나를 데려가셨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시 목자님이 제게 미얀마에 있는 식구들에게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성도들이 비행기표를 마련해 주어 창가 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나님께 왜 제 누나를 데려 가셨는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데려가신 건가요?’ 잠시 후, 누군가가 제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투투, 창밖을 보거라.”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전지전능하신이 보였습니다. 심히 아름다운 구름이 고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마치 그림처럼 다른 형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아, 놀라

우신 하나님!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지요. 세상 마지막이 오면 나타나셔서 우리와 만나시겠지요.” 그리곤 내려다보니 아주 작은 집들이 보였는데, 애를 써도 사람들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는 저 모든 사람들과 그 생각까지 어찌 다 아실까’하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놀랍게도 제 마음 깊은 곳부터 뜨거워지며 그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평안했습니다. 그리곤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나의 죽음에 대해 가졌던 제 모든 의구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곤 이제야 제가 고통과 고난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위로하셨듯이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제 삶에 슬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평강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 주여! 민들레지역아동센터를 받으소서!

장항교회  
허재환 집사

오랜 교직생활을 마치고 장고 끝에 전혀 연고가 없는 서천(장항)으로 귀농을 하였다. 물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이었지만 깊은 생각보다 교통과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았다. 비록 서울에서 2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에 있어 서울 가기엔 불편하였지만 바다와 강, 나지막한 산들, 들판이 있어 노후에 마음 편하게 신양 생활할 수 있는 장소였다. 더욱 마음에 드는 것은 집에서 차로 3분이면 장항역이고, 6분이면 군산이라 생활도 편리하였다. 더더욱 서천으로 내려오게 된 근본적 이유는 참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미래가 있는 교회를 보았기 때문이다.

2017년 8월말 퇴임을 하고 9월초 바로 이사를 내려와 시골생활에 적응하기 위하여 밭에 유실수도 많이 심고, 양파와 마늘농사도 지었다. 긴 겨울을 보낸 다음 해 6월에는 속이 찬 양파와 마늘을 넉넉하게 수확하여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누어주고, 고구마 농사도 많이 지어 이웃과 나누고는 모자라 이웃에게 구입하여 보내며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평소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나였기에 점점 손가락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농사를 짓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마침 교회와 담장 하나 사이인 ‘민들레지역아동센터’가 매물로 나왔는데 교인수가 적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항서부교회이지만 아동센터가 미래선교를 위한 기관임을 믿고 기도 제목을 세우고 도전하였다. 사실 청년부는 숫자도 적지 않고 열정도 있지만 아동부는 4명뿐이라 교사가 학생보다 두세 배는 많으며 가까운 미래에 아동부가 늘어날 가능성 또한 희박하였다. 희망을 갖고 도전하려는 우리에게 센터의 전운영자는 센터를 운영하여 전도하기는 정말 어려우니 그 생각은 버리라고 했다. 2007년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전도한 아동은 한 명으로 그나마 수원으로 이사했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

결국 교회가 인수하여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부족한 나를 센터의 원장으로 위촉하며 미션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아동선교」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였다. 올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며 두 가지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매일



〈놀이터 정비〉



〈청년 봉사활동 1〉



〈간판 교체〉

출근하면 교사들과 회당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월요일 오후엔 전 직원과 함께 예배했으며, 매월 초에는 목자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며 주의 일을 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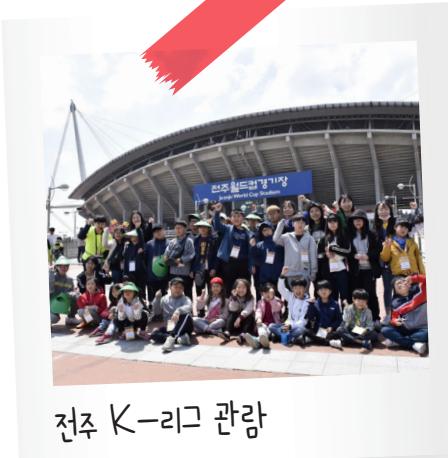
그러나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센터는 할 일이 너무 많았다. 선생님들은 기초 자료가 부족한 아동 관리와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기 위하여 늦은 시간 까지 근무하였으며, 또 청소와 식사 준비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오신 연세 많으신 분들이 하시기에 쉽지 않았다. 나는 긴 겨울을 호주 멜버른에서 보내고 3월



〈청년 봉사활동 2〉

초 출근하여 우선 건물보수와 놀이터 정비를 시작하였다. 철제 계단은 녹슬고 페인트도 부식하여 위험하였기에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막힌 하수구를 뚫고 침전물을 제거하였다. 또 교회에 있지만 오래 방치된 놀이터(미끄럼틀, 그네 등)를 보수하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녹슨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였다. 간판은 하남교회 안호연 형제가 내려와 무료로 설치하여 주셨다.

매월 교회와 센터 연석회의에서 센터 전 운영과정을 검토하고, 선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청년 봉사활동을 지원한다.



청년들은 아동들과 관계형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시행한다. 그들은 시간을 내어 조별로 꾸준히 아동들과 만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전주에서 열린 K-리그 축구경기를 함께 관람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장항고 체육관을 빌려 민들레 운동회를 열고, 8월에는 여름캠프를 청년부 주관으로 전남 영광에서 실시하여 아이들과 하나 되며 선교활동의 주춧돌을 놓기 시작하였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지난 7월말에 열린 여름성경학교였다. 청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참석자를 위한 꼬리표가 붙은 안내문을 센터 벽에 게시하였는데 한 장도 가져가는 아동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 그러다가 그동안 공을 들인 청년부와 센터 김미지 선생이 아이디어를 내어 여름 성경학교 설명과 함께 선착순 10명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더니 서로서로 신청하여 탈락자가 나오기까지 하였다.

할렐루야!!



〈여름성경학교 1〉

센터는 현재 초등학생 40명으로 다문화 1/3과 한부모 또는 조손 1/3, 기타 1/3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음악 놀이, 영어회화, 장항고 지원 수학, 과학(목)공예, 탁구 및 창의수학 등이며 원생들의 등·하원은 교회 승합차를 이용하고 있다. 매일 프로그램 운영과 간식 및 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직원은 11명으로 사회복지사 3, 아동복지사 1, 사회복무요원 1, 조리사 1, 청소 3, 보건교사 및 원장이며, 매일 10시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한다. 모두 최저 임금을 받으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예



〈여름성경학교 2〉

수의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선교 소명임을 새기며 오늘도 원생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센터가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이다. 구성원 모두 이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며 봉사하여 원생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작은 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복음 전파 사업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 교회 성도들께서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적 후원으로 힘을 주셔서 주를 위한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도한다.



〈과학공예〉



〈놀이 수학〉

# 주의 뜻대로 빚어 만드소서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군생활 중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군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의 일기 형식을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 〈입대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갔다. 3층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웬지 거기서 기도가 하고 싶었다. 이미 내가 원하던 보직은 다 떨어졌고 대학 전공에 대해 고민하던 상태이다. 내 첫 번째 군생활 목표는 지금의 나보다 전역했을 때의 내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였고 두 번째 목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해서 나오기였다. 기도를 마치고 훈련소로 출발하여 부대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는 진짜 혼자가 되었다. 마음이 안정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했다.



강남교회  
김종민 형제

## 〈훈련소 기간〉

교회 성도께 선물 받은 새번역 성경을 꺼내어 읽었다. 혹시 내가 주변 시선을 의식할까 걱정했지만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이었고 어색해서 말도 꺼내지 않는 사이여서 상관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성경 읽는 것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일부러 공격적인 태도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그들의 의도를 알고 대처하는 법도 알게 하셨다. 심하게 그리스도인을 욕하고 예수를 욕하는 한살 어린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니 주변에서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대단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때 나는 내 행동과 말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할 수도 있지만 욕되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틈틈이 성경도 읽고 힘든 훈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 도와달라고, 내게 힘주시라고 기도하고 불침번 시간에도 혼자 속으로 기도하고 여러 성도들이 보내주시는 편지의 말씀 구절과 찬양 가사들을 통해 진실된 위로를 얻으며 훈

련소 생활을 보냈다. 몸은 힘들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같아 너무 뿌듯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군생활의 시작인 훈련소는 내 훌로서기 신앙생활의 시작이었고 그 시작은 아주 괜찮았다고 평가하고 싶다.

### 〈후반기 교육 기간〉

운전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갔다. 훈련소의 연장선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일이 발생했다. 도로주행 평가를 진행하다가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로 내가 운전병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사고가 났을 때는 놀라고 당황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 그렇게 큰 사고도 아니었고 이것으로 인해 내가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닌데 이게 운전병을 하지 못할 이유인가? 라는 생각에 억울했다. 그래서 간부께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며 운전병이 너무 하고 싶다고 말하면 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동시에 사고가 났지만 경미한 사고로 내가 다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 내게 주어지는 불이익은 운전병을 하지 못하는 것 말고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른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순종의 태도로,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기로 했다.

그렇게 자대배치 시간이 다가왔고 나는 강원도 고성에 위치한 22사단으로 배치되었다. 같이 교육받은 동기들이 불쌍한 눈빛으로 쳐다본다. 위치도 최전방이고 들리는 소문에는 자살과 사건 사고가 많은 부대였다.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이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내게 주신 길임을 믿고 그냥 따라가자고 생각했다.

### 〈자대 기간〉

사고로 인해 자대 배치 이후에 보직을 다시 정해야 했다. 포병 인원이 부족하다 하여 박격포를 운용하는 곳으로 보내져 그곳이 내 최종 자대가 되었다. 처음에는 조금 실망스러웠다.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인데 그런 일을 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또 남들이 힘들다고 하는 포병을 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영 좋지 않았다. 그래도 이왕 이렇게 왔으니 내게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대 생활을 시작했다.

예상대로 몸은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힘든 것은 없었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나는 여태 까지 인간관계에 있어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서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내 교만이었다. 나랑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선임과 잘해주려고 할수

록 대들려고 하는 후임이 갈수록 나를 힘들게 했다. 육체적 고통에 정신적 괴로움이 더해지니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했다. 내게 주어진 길을 가겠다는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도대체 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도대체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길이 무엇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만 남았다. 일과 사람, 두 가지의 스트레스를 받으니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티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소대 간부께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운전병으로 보직을 변경할 수 없겠냐고 여쭤보았고 소대장은 알아봐주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큰 훈련이 있었다. 훈련 도중 군장 2개를 메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접질렸다. 안 그래도 평소에 축구하다가 자주 접질리던 발목인데 양쪽에 약 15kg짜리 군장을 메고 접질리니 통증이 꽤나 심했다. 훈련이 끝나고 군병원에 갔다가 발목에 뻣조각이 있고 인대도 많이 손상되어 있다고 수술을 권유하였다.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훈련하고 운동하다보면 더 안 좋아질 거라고 하였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민간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아보고 싶어 10월 휴가 때 가보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수술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 하셨다. 감사하게도 민간병원 의사의 대학 동기

가 국군수도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하며 연결해 주셨다.

휴가복귀를 하고 나서 며칠 후 소대장께서 병사 희망에 따른 보직 변경은 원칙상 불가능하고 병영갈등으로 인한 부대 이동은 원래 가해자가 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네가 옮기길 원하니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알겠다고 했고 여기 남지 않고 더 이상 볼 사람들도 아니라고 생각하니 스트레스를 덜 받기 시작했다. 부대를 옮길 날짜가 다가왔다. 그 후 임에게도 사과를 받았고 그 선임도 전보다는 터치가 덜 하여 나름 베틀만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왜 그렇게 힘들고 견디지 못했을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내가 자신있어하던 인간관계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내가 너무 겸손하지 못했구나 라며 반성을 하고 회개하며 다시 시작되는 인간관계에서는 주께서 인도해주시길 기도했다.

부대 이동 후,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열심을 다했다. 보통 부대를 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잘못을 해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좋지 않은 시선이 박혀 있어서 나는 이등병 때와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했고 그것을 알아봐 준 소대원들은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잘 대해 주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

께 감사했다.

그렇게 순조롭게 군생활을 하다가 민간 병원에서 소개 받았던 군의관께 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날짜를 잡았다. 여태까지 여러 번의 진료를 보며 알게 된 것은 내가 예전부터 운동하며 자주 접질리면서 누적된 것이 이번에 훈련 중 접질리면서 터졌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었다. 다친 것이 좋은건 아니지만 군생활하면서 몸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남들이 보면 비난하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나 싶다.

### 〈병원 생활〉

입원을 하고 이틀 뒤에 수술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기도를 했고 감사하게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재활운동을 하며 병원생활을 하였다. 병원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재활운동을 할 때 말고는 하루가 온전히 나의 시간이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에다 다리까지 움직이지 못하니 하루 종일 누워서 휴대 전화만 하였다.

그렇게 한두 주쯤 지나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성경통독, 유튜브 설교듣기, 성경 장별 정리, 암송, 찬양 가사 묵상, 매일 세 번 기도, 영어공부 등등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노력했고 처음

에는 습관이 되어있지 않아 힘들었지만 차근차근 포기하지 않고 실행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이 면회를 와서는 형이 진로에 대한 상담과 함께 어떤 일을 업으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내주고 갔다.

사실 군대 와서 재정비를 통해 이것을 정해서 나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것 같다. 숙제에 대해 고민중에 기도하고 여기저기 조언도 구하며 내린 결론은 내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것이다. 숙제를 마무리하고 약 3개월 동안 병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많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감사했다.

### 〈퇴원 후〉

퇴원 후 자대로 가서 10월인 지금까지도 역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 평탄치 만은 않았던 내 군생활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편한 방법만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평탄한 군생활을 할 것 같았던 나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들을 주셨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든 원하지 않는 방법이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 깨닫게 되었다.

자원입대로 지원한 것은 다 떨어지고, 전공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군대에 보내시고, 훈련소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 운전교육 중 사고가 나고, 자대 배치 받을 때는 내 욕심을 뒤로 하고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셨다. 내가 교만했던 인간관계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나를 낫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다. 새로운 부대에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주셨다. 병원생활을 통하여는 충분한 휴식과 많은 시간 주셔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잘 사용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셨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여 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이자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처음 군생활부터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라는 그릇을 만들어 가심을 느낀다. 진흙을 빚어 불에 구워야 온전하고 단단한 질그릇이 나오듯이 고난의 불을 통해 나를 연단시키시고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불로 나를 더 굳세게 하시고 또 내가 견디지 못할 것 같을 때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시

며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주는 나의 ‘토기장이’이시다.

주의 손길에 감사한다. 온전한 그릇이 되기에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어떤 고난이 와도 원망보다 기도와 감사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완성시키실 것을 믿는다. 주님은 토기장이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다.

‘주의 뜻대로 빚어 만드소서, 주의 뜻대로 빚어 만드소서.’

주의 뜻대로 빚어져가는 그릇 되길 소망하며 내 일기를 마친다.

군복무를 해야 하는 많은 믿음의 후배들, 군복무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힘겨워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고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임마누엘.



# 제주 집회소를 소개 합니다

동부교회·제주집회소

김용준 목자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61 (소예빌 202호) 제주 집회소 전경〉

제주집회소는 현재 세 가정에 다섯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의 집회소는 2019년 4월에 마련하였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은심 모친(광주 김형식 형제 어머니)의 친정어머니(이재희 모친)께서 1954년경에 제주도로 이사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시작했고. 1970년에는 우요한 목자께서 심방하여 관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기적 집회는 1996년 당시 동부교회 소속의 김학송 형제가 제주 기상청에 근무(제주관측소 소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해에 이사회 결의로 제주도 내 신도를 광주교회 소속 신도로 관리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1998년에 채국병 형제 가정이 직장 관계로 제주도에 이사하

면서 총회에서는 서울과 경인 지역 목회자들께서 차례에 따라 심방키로 결정하였고, 1999년 3월부터는 다시 전남교구에서 관리토록 하여 매월 가정을 돌아가며 집회했습니다. 그렇게 잘 유지되던 제주도 집회는 김학송 형제 가정이 대전으로 이사하고 2001년 채국병 형제 가정마저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더는 집회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제주도에서는 집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인천교회에 출석하던 이인우 형제(최향미 자매)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하여 총회에 심방을 요청하였고, 총회에서는 제주에 사는 성도들 가정을 다시 파악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성도들을 파악을 해보니 그

동안 다시 제법 많은 성도가 제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은심 모친이 여전히 제주에 거주하고 있고, 강남에서 이사한 양기현(이송애) 형제 가정과 목포에서 이사한 정미옥 자매 가정, 중국에서 시집온 임화평 자매 등이 제주도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당시 인천교회 담임 목자인 장종규 목자와 목포교회 담임 목자였던 김한길 목자의 협조를 구하여 제주도의 가정들을 심방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 총회 이사회가 재편되어 제주도 성도 관리에도 변화가 왔습니다. 국내 선교부에서는 제주교회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서울 소재 교회 목자(허명도, 김한길, 박은진, 김용준)를 중심으로 제주 선교사역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주선교사역팀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심방하기로 하였고, 특히 전주교회 한영철 집사가 심방 때마다 숙소를 잡아 주어서 1박 2일 일정으로 심방 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새롭게 시작된 집회는 2018년 최향미 자매 가정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 다시 인천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직장 관계로 제주도에 살게 된 가정들이 다시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 제주도의 한 계가 다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주축이던 최 자매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면 다시 제주 사역은 정리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리를 고민할 무렵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신앙을 떠나 집회에도 소극적이었던 이송애 자매가 신앙을 회복하고 집회에 열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기를 시작했고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니 제주 개척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주사역의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하도록 하신 사건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선교책임자인 허명도 목자께서 심방을 갔을 때 이은심 모친께서 옆집의 친구를 전도하려 가자고 심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이 모친의 방문을 거절하지 않고 기쁘게 허락하여 주었지만, 그 모친이 예배를 마치고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요새 누가 이런 예배당도 없는 교회를 다닌다고, 집에서 예배하는 교회를 가겠나? 전도하려면 예배당이 있어야지.”



우리는 처음 만난 그 모친의 말을 통해 제주 선교의 비전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성도가 이사를 가면 집회도 정리해야 하는 이런 선교를 할 것인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역팀에서의 논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주도에 견고하고 안정적인 선교를 위한 제주 선교 비전센터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총회 이사회에서는 선교팀의 이런 제안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적립해온 개척기금을 제주 개척의 비전을 가지고 제주집회소를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순조롭게 진행되어 2019년 4월 24일 감격 속에 제주집회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총회에서는 2019년 7월 6일부로 동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용준 목자를 전담 목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제주집회소는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는 동부교회와 연계하여 실시간 화상 예배, 안식일에는 오전에 이



〈집회소 간판을 대신하는 외부 현수막〉

송애 자매가 이은심 모친을 자가용으로 모시고 와서 집회소에서 실시간 화상 예배, 오후에 두 분이 함께 기도도 하고, 교제도 나누며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방은 매월 셋째 주 수,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집회소는 평소에는 각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집회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집회소는 18평 공간에 방이 2개, 거실과 주방, 베란다, 화장실이 있고, 숙박을 위한 모든 시설이 호텔급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가족들이 휴가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신도라면 누구든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은 무료이니 많이 이용해주시고 제주집회소와 제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기본 소식도 있습니다. 수원 교회의 모 자매가 제주도 경찰시험에 지원하여 이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고,



〈집회소 첫 예배 기념사진〉  
채국병 형제 가족이 휴가차 왔다가 함께 예배

최종합격하면 제주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10월 들어서는 이송애 자매의 전도 대상자인 친한 언니도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안식일 예배에 함께 참예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성도들이 정착하여 사는 곳이 아니고 직장 관계로 몇 년 머물다 다시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떠나가면 예배도 함께 멈춰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정착하

여 사는 성도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제주도민의 전도 가능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 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그 속에 큰비가 들어 있는 것을 보지 아니했던가요? 우리는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봅니다. 할렐루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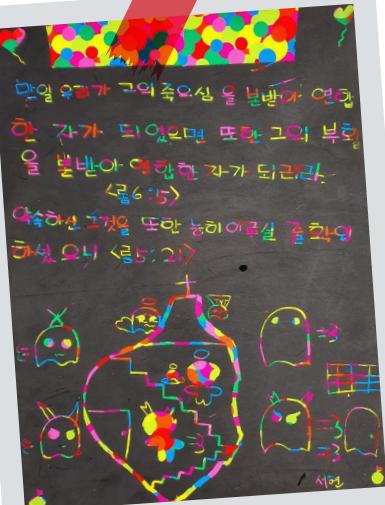
## 제주집회소 역사

- 1996년 7월 31일 이사회 : 동부교회에서 관리
- 1996년 9월 1일 이사회 : 광주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광주교회 소속 신도로 하기로 함
- 1998년 1월 19일 이사회 : 총회 관리
- 1998년 2월 8일 이사회 : 서울 경인 지역 목회자가 순차적으로 심방기로 함
- 1999년 3월 7일 이사회 : 전남교구에서 관리
- 2001년 채국병 형제 가정이 대전으로 이사함을 끝으로 제주 집회 마침
- 2017년 6월 6일 이은심 모친댁에서 새롭게 첫 모임 (인천교회 최향미 자매 요청으로 새롭게 집회가 시작됨 (장종규, 김한길))
- 2018년 서울교회 중심으로 제주 선교사역팀 구성하여 관리  
(허명도, 김한길, 박은진, 김용준)
- 2019년 4월 24일 제주집회소 마련  
(주소 : 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61 (소예빌 202호))
- 2019년 7월 6일 제주집회소 담당 목자를 지정하여 관리키로 함  
(이사회에서 동부교회 김용준 목자를 지정)

# 거제교회 아동부 분반활동

거제교회  
아동부





만일 우리가 구의 죽으신을 보발아 영한  
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로  
을 보발아 영합한 자가 되리라  
〈골6:5〉  
예수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로 걸 출하고  
해셨으니 〈롬5:21〉

〈롬 6:5〉 〈롬 5:21〉

1 하나님 나라도의 종 박수를 사도로  
보금성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  
하고 있었으니  
2 이 놀음은 하나님의 선지자  
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고난하여 성경에 드리리  
약속하신 것이라

〈롬 1:1, 2〉





거제교회 아동부 예배

로마서 5장 8절  
인간이 악한 일을 하며 고난과의 우울한 후회에 주저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의 사랑을 확신했느니

율법과 3만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것처럼 으로 꿈을 들이 너희에게 전파하므로  
모두 만족으로 살아 삽도 ...

마태복음 10장  
제자는 꿈을 사랑하시되 끌끌이 사랑하니라

마태복음 10장  
내가 편안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 악한  
죄인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롬 5:8〉 〈유 1:3〉 〈눅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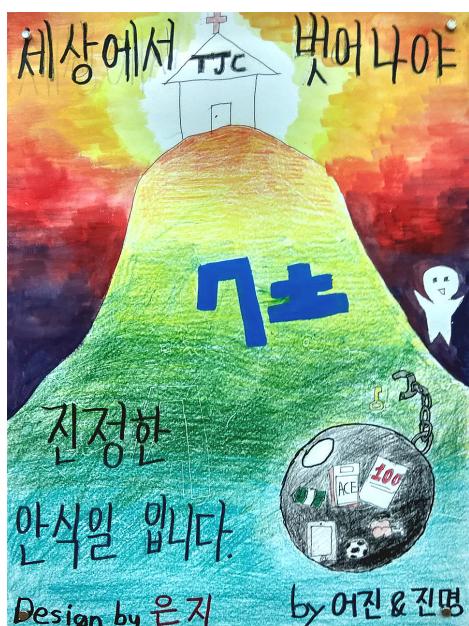
하나님과의 만남 | 천안교회 김은지 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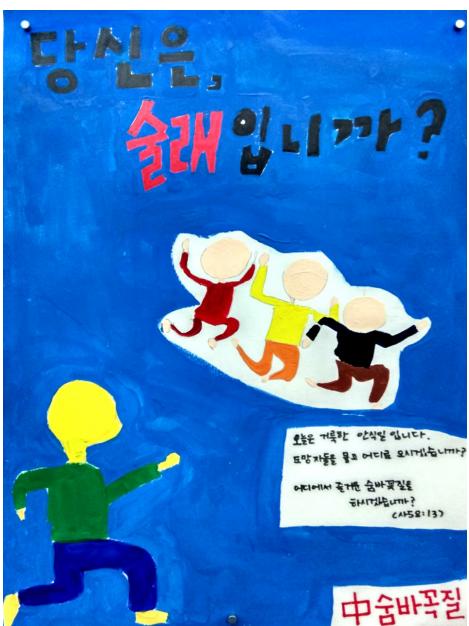
# 천안교회 학생부

## TJC 포스터 전 :D

주제 : 안식일을 거룩히! (사 58:13)

천안교회  
학생부





# 멀리 멀리 갔더니 (찬 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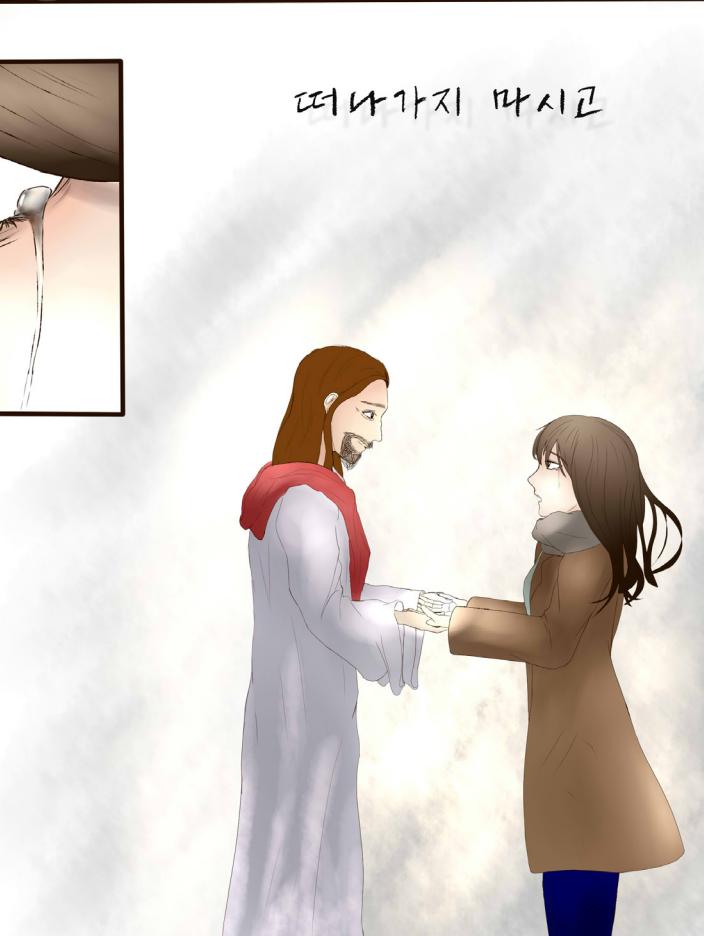
장항서부교회  
김연수 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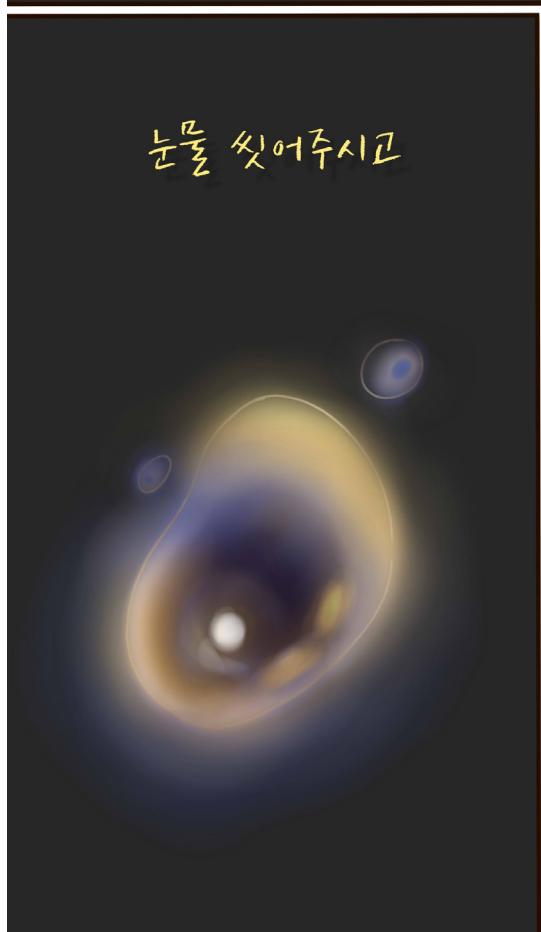


슬프고  
의로워  
정처없  
다니니  
이니



길  
이  
하  
소  
서





예수 예수 내 주여



# 신·구약 중간기 에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

강남교회  
허민욱 형제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나만 홀로 이 어려움에 던져진 것처럼 느끼는 순간. 이 순간에는 마치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는 생각에 무력해 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경권인 말라기와 신약의 첫 경권인 마태복음 사이에는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리켜 ‘신·구약 중간기’나 ‘침묵기’라 부르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바사)의 포로기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지만, 그 무렵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책망하신 것을 마지막으로 침묵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왕조가 잠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헬라(그리스)와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

가며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메시아(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 신앙적으로 예수께서 오실 최적의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의 침묵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라는 하나님의 침묵 아래에서 이 세상을 마치 유대인과 유명한 역사 속 인물들이 다스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기 원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유대인사이에서 회당 문화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성전의 파괴는 유대인에게 큰 충격이자 삶의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에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들은 새롭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



을 모색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낸 방법이 회당으로 보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의 포로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디아스포라)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에서 회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곳은 서기관, 바리새인,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나누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수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을 비롯한 경건한 이방인(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장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둘째, 많은 나라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 당시는 로마가 수많은 나라를 지배하였으나 문화와 언어만큼은 헬라가 지배하였습니다. 기원전 333년 마케도냐의 알렉산더는 2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단 10여년 만에 세계 각지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70개까지 건설하게 됩니다. 이 도시들은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확산지로 역할을 수행합니다(참고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유대인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히브리어 뿐만 아니라 아람어와 만국

공용어인 헬라어에 익숙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와 사도들의 이방인 전도 과정에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되면 겪어야하는 어려움이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셋째, 당대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70인역)이 만들어집니다.**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에 그들만의 특이한 음식문화, 정결례, 할례, 율법, 절대자 하나님 등은 이방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로 오시기 전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 모든 사람들로 확장할 것임을 성경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십니다.

기원전 3세기, 이집트(애굽)에는 헬라에서 이어진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를하게 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당시 왕은 세계의 온갖 도서를 소장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러한 욕심에 기인하여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70명 또는 72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데려와 이 번역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70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대



이방의 지배를 받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이스라엘이 받고 있던 당시였기에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이 그리서어로 번역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번역을 통해 유대인과 그들의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사도행전 10장, 13장, 18장 등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회당 예배에도 참석하는 경우들이 있었기에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에서 주요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 넷째, 로마라는 지배자를 통해 세계로 이어지는 길이 닦입니다.

옛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가 있습니다. 제국으로 성장해 가던 로마는 정복전쟁을 통해 잡아들인 포로들을 노예로 활용하거나 공공 노역에 활용했습니다. 노예들로 하여금 세계 각지로 이

어지는 도로를 건설하게 함으로써 모든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반란을 진압하

고, 안전하게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길이었으나 이 도로를 통하여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이전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를 얻게 됩니다. 어떠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시의 이동가능 거리가 도로의 건설로 인해 하루 30km에서 80km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 다섯째, "팍스 로마"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 시대가 찾아옵니다.

예수께서 강림하신 당시의 로마는 1,2차 삼두정치(세 명이 동시에 통치하는 시스템)를 끝내고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번영을 꾀하던 시기입니다. 페르시아 이후 헬라, 로마의 지배기를 거치는 동안 예루살렘은 대륙(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간지(사이 땅)에 위치하고 있기에 꾸준한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강력한 황제가 등장하여 당대에는 이스라엘 지역이 전쟁에 말려들 위험이 없는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배경으로 인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와 갈릴리에서 안정적으로 말씀을 전파하실 수 있었으며, 사도들은 전쟁의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까지 성경책이 한 장 넘어가는 동안 이스라엘은 400년에 이르는 비참한 식민기를 거쳤습니다. 적대적인 지배자만 아니라 때로는 우호적인 지배자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독립왕조가 등장하기도 했지만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부의 정치세력과 타협했기에 백성의 삶은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만 기대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이 넘도록 침묵하신 듯이 보이셨지만 세계를 스스로의 계획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계셨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두셨던 약속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퍼트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하게 하

시고, 전도자들을 위하여 언어와 길을 정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적의 시기에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안하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침묵처럼 보였으나,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묵묵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계획한 것들이 전혀 의외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전처럼 묵묵히 나를 향한 최고의 계획을 실행하고 계실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유1:20~21)

우리 믿음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육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삶으로 변화해야 한다. (딛2:11-13)

주 예수의 세례와 구원의 은혜를 얻은 이후, 안타깝지만 우리 중 다수는 믿음의 삶의 의미를 잊고 열심이 사그라지곤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고 주를 우리 삶의 주관자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소홀하게 된다. 도리어 우리 자기가 성취한 것과 재력, 경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의지하게 된다. 이것은 주 예수께서 권고하신 믿음의 삶이 아닌 정욕에 따르는 삶이다. 안락하고 태평한 믿음

번역 | 동부교회 김경남

호주 퍼스교회  
시몬 친 Simon Chin

생활이 안정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태평한 믿음이 위험한 이유는 무엇일까?

## 믿음에서 떠나는 위험

예수의 공생애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진리가 어떻게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요8:33)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존의 신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오히려 말씀 안에 거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배척했다. 그 후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실 때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했다(요8:31-59). 이것은 유대인들 속에 예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요8:37).

이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예수를 돌로 치러 했던 유대인처럼 오늘

날 교회에도 우리 주를 부인하는 신자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몸을 사신 바 되었지만, 무리에서 스스로를 끊고 떠난다. 더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만물의 주관자께 순종하지 않는다. 매우 안타깝게도 더 이상 영생을 위한 칭의나 성화를 얻는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예한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히6:4-6)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방지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을까?

## 시험과 고난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위험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지 않으면 시험을 받아들이고 고난을 극복하기 어렵다.

바울은 사역 동안에 육체의 가시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다.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고 신실함을 유지하여 여생은 그에게

머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가시가 떠나도록 하나님께 간구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후12:9a)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고후12:9b-10)

이렇게 바울은 신실함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에 복종했고, 그를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갈2:20).

## 믿음의 삶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만나면 신앙에서 멀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삶이 협통할 때 인내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삶을 유지하며 끝까지 견디어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 1)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깨닫는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행8:26-39). 내시는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태우고 그 귀절을 지도받았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텔 깍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행8:32-33)

이 글에서 시작하여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세례 받기를 요구하였다. (빌립이 내시에게 그대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대답했다.) 내시는 말씀을 찾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 즉 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것이며 이러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말씀을 찾으면서 성령께서 신령한 지혜로 우리를 채우시길 간구해야 한다(요16:13, 고전2:13). 성령께서 구원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

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의 신비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며(딤후3:15),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인다(렘29:13).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는 그를 알게 될 것이고, 그의 사랑이 그를 위해 살고 죽도록 강권한다(롬14:7-8).

성령의 계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춰졌던 지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깨달았다(고전2:4-10). 어떠한 시험에도 바울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킨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았기 때문이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딤후1:12)

## 2)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찌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전12:13b-14)

이는 한 평생 지혜에 대해 탐색했던 솔

로몬 왕이 전도서에 기록한 결론이다. 예수는 심판자로서 마지막 날에 천사와 함께 의의 심판을 하시어 각자 행한 대로 갚아 주시려고 다실 오실 것이다. 의인은 영생을 얻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어떤 신도는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처럼 잊고 살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하여 음행과 탐욕의 죄를 범하고 결국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관한 사랑에 굴복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지속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하고 죄에 굴복하여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요셉은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한 인물이다. 애굽에서 주인의 처가 그를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창39:9)

주를 경외하므로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했다. 옷을 빌미로 요셉은 부당하게 옥에 갇힌다. 요셉이 옥에서 생활할 때, 전옥의 총애를 받았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여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추천하기까지 2년이 걸린다. 이 일로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는 바로에 버금가는 2인자가 된다.

이때까지 요셉은 형들이 애굽에 노예로 판 것을 시작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요셉은 할 만한 지위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는 않았다. 하나님의 대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을 세상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에 보내신 것을 알았으며, 그래서 그들은 기근으로 진멸되지 않았다(창45:3-8).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악행에 복수할까 두려워했다. 하지만 요셉은 말하였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50:19-21)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수와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총을 받았다. 요셉은 악에서 떠났다(잠 3:7).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한 신자는 자기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로 인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된다. 악을 악으로 갚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미움을 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요일3:15). 그리고 불의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이러한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잘못에 대한 핑계를 대며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장로 베드로의 말씀은 유익하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19-21)

더욱이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심판을 맡긴다면, 모든 상황에서 선을 추구 할 것이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

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 함으로 네가 속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12:17-21)

### 3)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주권에 복종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8:6)

우리의 전심으로 섬기는 예수는 생명의 주시다.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인 하나님 이시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요14:6)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장로 요한은 짐승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에 대한 환상에 관하여 기록한다.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 서서 거문고를 가지고 노래하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

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계15:3-4)

승리한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기에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가진다.

베드로와 바울은 사역 중에 투옥과 팁박을 당했음에도 믿음과 복종의 삶을 살았다(행12:4, 16:24-25). 굶주림과 목마름을 견디고 오해와 부당한 고소를 당했으며 형제들에게도 책망을 받았다(고후 12:10).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순교했으나, 그들은 승리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울은 죽음이 임박한 것을 깨닫고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복종하였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4:6-8)

아가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투옥에 대해 예언하자, 형제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 바울은 대답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받을 뿐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행 21:13)

바울은 생명의 주요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했다.

## 결론

우리의 삶 동안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 순종이 없는 승리는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우리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자. 이를 행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열매를 맺으리라 확신한다.

# 대만방문 소감

인천교회  
이소윤 자매

중3이 된 저는 예전보다 세상친구들과 만나는 횟수가 늘고 교회를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다고 느껴져 정말 한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참예수교회 중3들이 모여서 대만교회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저는 저의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며 대만방문에 참여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대만방문을 신청하고 나서 기도를 할 때나 준비를 할 때 즐겁게 참여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만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니 그제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대만에 방문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느껴서 기도를 열심히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하루 전 날이 되었습니다. 강남교회에 모여서 친구들과 친해지는 시간도 가지고 대만에 가서 찬양교류를 하기 위한 중국어로 된 찬양들을 연습했습니다. 그저 연습만 한 것인데 저는 벌써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월 29일 대만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대만에 도착하고 가장 먼저 대만총회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을 먹었습니다. 저는 대만음식을 잘 못 먹는데 신기하게도 총회에서 해주신 음

식들은 다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십전교회에 가서 찬양교류를 했습니다. 무척이나 떨렸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덕분에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면 할수록 즐겁고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습니다. 특히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찬양을 중국어로 부르며 다같이 원모양으로 손을 잡았는데 그때의 기분은 아직도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분명 얼굴도 다르고 사는 나라도 다 다른데 진짜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둘째 날엔 오갑교회, 메이허교회, 성공교회, 충지교회를 방문하였는데 성공교회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생명성장캠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서 울동과 찬양을 하는데 정말 순수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정말 많은 생각이 오고갔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나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깨끗하지 못하고, 죄로 가득 찼고 또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갔던 교회 중엔 화련교회와 덕안교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화련교회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과 찬양교류를 했는데 찬양교류가 끝나고 다가가고 싶었지

만 ‘중국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겠어?’라는 생각에 보고만 있다가 결국 되지도 않는 중국어를 사용해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고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분명 말도 안 통하는데 어떻게 대화했나 싶지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통했나봅니다. 덕안교회에서는 마지막 찬양교류여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찬양을 하려 앞에 나가니 제가 피곤했던 사실도 잊은 채 정말 즐겁게 찬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나오셔서 율동과 찬양을 웃으면서 하셨는데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나이가 들어서도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교류가 끝나고는 함께 게임도 하며 놀기도 하였습니다. 정말정말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만큼 즐거웠습니다.

이번 대만방문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느꼈습니다. 제가 세상친구들과 게임을 하고 놀 때 느끼는 즐거움과 교회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만교회 안에서 느낀 즐거움과 기쁨은 아

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만교회를 방문하면서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어마어마하였는데 가는 교회마다 정말 정성으로 대접해주세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한국에서도 사랑을 받기만 한 것만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많은 사랑을 이젠 베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만방문 기간 내내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비도 안 오는 맑은 날씨를 주시고, 크게 다친 친구가 없도록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세상을 향해 서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 대만 방문 소감

※ 개인 소감문에서 발췌

## 태예지 (안양)

마지막으로 대만에 가서 정말정말 순수한 믿음을 느끼고 온 것 같고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모두 순수한 아이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목자님이 하신 말씀 중 우리가 뭐라고 성도들이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실까? 라고 하셨는데 사실 나는 항상 달랑대서 남들이 채겨주는 거에 익숙해 있었던 줄 알았지만 그래서 대만 성도들이 베풀어주시는 사랑을 조금 아무렇지 않게 여겼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분들께 사랑을 베풀어서 사랑을 받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 했다. 근데 그 믿음의 선배의 제일 처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선배들께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거라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당연히 여겼던 게 조금 부끄러웠다. 나도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김시효 (분당)

대만 교회를 가면 모든 성도들께서 웃으며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난 교회에서 손님이 오시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서 이때 너무 찔렸다. 이 모습은 정말 내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했다. 한 사람 한 사람 웃으며 맞아 주시는 게 대만 성도들의 따뜻함을 알 수 있었다. 덩달아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었다. 대만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대만 분들의 순수함과 믿음을 더욱 알 수 있었다. 우리 나이층의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친해질 수 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게 되어서 기뻤다. 교회 방문할 때마다 찬양 교류를 해서 너무 좋았다. 찬양할 때 다 같이 울음을 하거나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는 게 너무 인상 깊은 것 같다. 이때만큼은 진짜 믿음 안에서는 모두 한 가족 이구나라는 걸 정말 크게 느낀 것 같다.

## 유정아 (천안)

많은 교회 중 화련교회를 방문했을 때 인상 깊고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둘러보는 때 지은 지 얼마나 된 새 건물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련교회 집사님께서는 화련교회 건물이 10년 이상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충격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성도들께서 모두 교회와 물건을 아끼고 소중히 다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나는 하나님의 전을 아끼고 아끼며 소중히 다루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제가 교회를 다루는 태도는 ‘청소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신경썼던 저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마음으로 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겠습니다.

## 오다은(안양)

목자님은 그 사랑의 씨앗이 위로, 위로,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입니다고 하셨다. 하나님인 간에게 정말 한없고 크신 이유 없는 사랑을 베풀셨고, 그것을 깨닫은 몇몇 사람이 그것을 대만 성도께 전한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대만 성도들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신 것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사랑에 빛진 자이니,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도 하셨다.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들께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바울 같은 사도는 못되어 깨달음들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하셨을까.

사실 이번 대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 가면 느꼈던 것들은 퇴색되고, 그로 인한 변화는 눈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의 의지로 믿음이 자라게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 방법으로 교육과 전도에 열심을 내야한다고 하셨는데, 목자님께 죄송하지만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때 나는 한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지금껏 사단에게 번번이 패한 이유가 한순간의 열기로 무장했기 때문이란 것, 그리고 앞으로는 의지와 믿음으로 영의 싸움에 임해야겠다는 사실이다.

## 이솔진(청주)

다음으로 화련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화련교회에는 학생센터가 있어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학생들과 찬양 있는 숙소가 있었습니 다. 그 곳에서 교류를 할 때 집에서 떠나 교회 숙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힘든 기억이 보이지 않고 진심으로 찬양을 드리는 형 누나들을 보면서 나도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만 방문을 하면서 대만이란 타국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심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며 많이 배우고 윤석원 목자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닐 때 부모님께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내 의지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 김진구(수원)

이번 방문을 통해 대만 성도들의 순수한 사랑, 적극적인 사랑, 넘치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정 말 저희를 자기 몸처럼 대해주시고 항상 웃음으로 베풀어주시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먼저 말 걸어 주시는 대만 성도들의 사랑을 본 받아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아이부터 동갑, 형과 누나들, 여러 연령층이 정식 예배가 아닌 날에도 바쁘실텐데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참석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들의 사랑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정말 4박 5일 동안 저처럼 지극히 부족한 사람에게 한없는 사랑을 나눠주시는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서 저희는 사랑에 빛진 자로서 받은 설 수 없는 사랑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찬양 교류는 수요일에 덕안 교회에서 찬송한 ‘참예수교회’입니다.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참예수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예수 안에 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찬양이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드리며 비록 다른 언어지만 기도 드릴 때 만큼은 모두가 하 나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간씨에주!

## 한주희(서부)

대만 방문 전, 나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갔다. 하지만 모두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깨닫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교회를 갈 때도 그냥 습관처럼 다녔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듣는 것처럼 그냥 흘려들었다. 하지만 이번 대만방문을 통해 마음으로 감동을 느끼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보며 내 자신을 반성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고 진정한 행복과 편안함을 느꼈다. 대만방문을 한 것이지만 꿈을 꾼 기분이랄까. 천국을 맛본 기분이랄까. 이 세상에 있는 곳을 다녀온 느낌이 아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대만 성도들과 우리 중3친구들, 선생님들에게서 느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잊지 못할 것 같다.

## 박영우(전주)

그리고 닥안교회에 갔을 때 그곳에 정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성도들이 계셨는데 그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저시는 할아버지도 계셨고 기력이 없으신지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이는 할머니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사를 외워 찬양하고 울 동하는 모습에 정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서 찬양하기 전에는 여느 연로하신 성도로 보였지만, 찬양을 하는 그 모습만큼은 정말 어린아이인 것처럼 순수하고 온유한 미소를 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숨을 다할 때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때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찬양 드리고 싶다”는 까지 저분들처럼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찬양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눈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만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창예수교회”를 부르셨는데 그 찬양은 지금껏 듣고 불러왔던 찬양 중에서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그 찬양을 듣자마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성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음악적으로도 정말 훌륭한 찬양이었지만 더욱 훌륭했던 것은 그분들의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찬양에 크게 보였기 때문이었던 같습니다. 비록 짧은 대만 방문이었지만 그사이에 지금껏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 세상에서 느꼈던 즐거움과 기쁨을 다 버릴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귀하고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유지은 (전주)

충지교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셨다. 내가 낫을 좀 가려서 말을 먼저 걸지 못할 때도 먼저 와서 말을 걸어 주시고 말을 물라서 죄송하고 답답하셨을 상황에도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괜찮다고 하셨다. 주안에서 한 가족인 건 틀림없지만 어떻게 보면 모두 서로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어색하지 않게 서로 대화하는 게 정말 신기하고 예배할 때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으로 하나된다는 게 무언지로 실감했다. 그리고 우리교회에 외국 성도들이 왔을 때 악기를 한 적이 있는데 꾸찮다고 생각한 걸 정말 반성하게 되었다. 대만 성도들은 일찍부터 오셔서 음식도 준비해주시고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반겨주셨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분들처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였다고 느꼈다. 대만이란 곳이 나에게 처음 해외이고 익숙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낯설었을 수도 있는데 대만 성도들 덕분에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 정가을 (천안)

제가 대만에서 정말 차고 넘치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대만의 어떤 목자님께서는 ‘아무리 얼굴이 다르고 말이 다르더라도 만난을 때 할렐루야로 인사를 한다면 우리는 주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에 많은 분들이 한 줄로 서어서 저희와 하나 하나 손잡아 주시고 할렐루야라고 인사해 주셨을 때 저는 비록 할 수 있는 인사 말이 할렐루야 밖에 없었지만 성도들과 제가 나눈 할렐루야라는 환영과 감사의 인사는 정말로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덕안교회에서 나눈 찬양교류가 제일 인상 깊었는데, 아직도 영상을 보면 실감이 날 정도로 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했던 찬양보다 그 자리에서 두 곡을 더 하였고 모든 연령대의 분들이 모두 다 앞으로 나와 울릉까지 하시면서 저희를 환영해주시고 축복해주신 것에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것 같다.

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하였지만 방문했던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접대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 에덴장학회 소식

에덴장학회

늘 에덴장학회를 위해서 후원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성도들께 감사합니다.

에덴 장학회는 2019년 2학기에 총 10명(신학생 1명, 전임성업인 자녀 4명, 봉사 장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장학금의 지급은 총 32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1회 지급되는 장학금은 150만원으로, 장학금은 장학증서와 함께 교회로 발송하였습니다. 작은 금액이나마 주의 은혜로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에덴장학생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큰 일꾼으로 자라나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에덴장학회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에는 청년성지순례 사업과 학

생부 대만 방문 사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에덴장학회는 사업성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신학생, 전임성업인, 봉사 세 분야의 장학금 외에 다양한 장학금을 개발하여 보다 많은 일군들이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회의 교육부와 연계하여 장학제도를 통한 해외 교육, 선교 프로그램을 더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성도들께서 에덴장학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힘을 보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에덴장학회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 에덴장학회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후원금 계좌

농협중앙회 020-01-042101

국민은행 208601-04-036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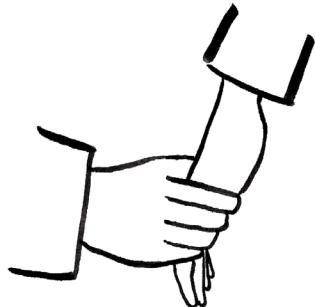
참예수교회 에덴장학회

참예수교회 에덴장학회

## 신학자양성기금 계좌

농협중앙회 790007-13-308247

참예수교회 에덴장학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리-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동이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  
침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볼 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빛처럼에 여러분의 간증을 들려주세요



여호와의 옛적 기사를 기억하여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77:11-12)

#### 간증을 빛처럼으로 보여주세요.

빛처럼은 성도 여러분의 원고를 늘 기다립니다.  
함께 나눌수록 기쁨과 은혜가 커지는 믿음의 간증을 빛처럼에 보내주세요.

**분량 | A4 2쪽 내외** (사진이 있으면 좋습니다. 고화질이면 더 좋습니다.)

**발송 | liklit@naver.com**

※ 보내신 간증의 내용과 호별 소주제에 따라 실리는 시기는 다릅니다.

# 참예수교회

## 10대 기본신앙



### 하나님

01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재시고 훌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임을 믿는다.



### 교회

03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교회의 부흥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 성령

05

성령을 받는 것은 전국의 기업을 얻는 보증이며 방언(영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됨을 믿는다.



### 성찬례

07

성찬례는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주와 연합하고 영생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성례임을 믿는다. 이 성례는 필요할 때마다 거행하며 반드시 한 개의 누룩 없는 떡과 포도즙으로 거행한다.



### 구원

09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 성경

02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믿으며 참 진리의 유일한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도생활의 기준이 됨을 믿는다.



### 세례(침례)

04

세례(침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 세족례

06

세족례는 주님과 상관을 맺고 서로 사랑하고 성결, 겸손, 봉사, 용서의 교훈을 가르치는 성례이며 세례(침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족례를 일차 행하며 신자들 상호 간의 세족례는 필요시에 시행할 수 있음을 믿는다.



### 안식일

08

안식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은 하나님께서 복주신 거룩한 날임을 믿는다. 단, 이 날을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내세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지킨다.



### 재림

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 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 거기서 내가— 너와—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출애굽기 25:22

